



2022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2



2022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2

24(Sun) - 26(Tue) April 2022

Conference Book II

A Society Changed by Journalism

언론이 변화시킨 사회

Conference Book II



Hosted by 한국기자협회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Supported b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2022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2

24(Sun) - 26(Tue) April 2022



2022 세계기자대회

Contents

개요	137
특강	149
콘퍼런스 II	167
참가자 리스트	251



※ 세계기자대회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으로 시행됩니다.

개요



행사명	2022 세계기자대회
일시	2022년 4월 24일(일) - 26일(화)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F)
주최	JOURNALISTS ASSOCIATION OF KOREA
후원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주제	▷ 콘퍼런스 I : 언론의 팩트체크와 언론자율규제 ▷ 콘퍼런스 II : 언론이 변화시킨 사회
사업목적	<p>1. 각국의 허위정보 검증 실태와 정책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언론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은 국민들의 안전에 기여하였지만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오히려 사람들의 불안을 가중시킴. - 나아가 허위 정보는 언론의 신뢰를 급격하게 추락시킴으로써 언론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특히 감시와 견제는 물론 약자들을 대변하는 고유의 순기능도 퇴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를 계기로 각국의 허위 정보 퇴출을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언론 신뢰 구축을 위한 관련 정책과 언론계 자성 노력을 듣기 위함. <p>2. 언론이 바꾼 사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뿐만 아니라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언론의 역할임. - 한 줄의 기사, 한 컷의 사진이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음. -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특정 언론 보도가 사회를 변화시켰던 우수한 보도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의 내용을 공유, 상호 분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 우수 사례 중 참가국 기자가 활용 가능한 기사 아이템을 발굴하여 각국 정책을 유도함. -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의 정착을 위한 언론의 역할도 함께 논의.

날짜	시간	주요 일정		
4.24 (일)	14:00 -	최종 리허설 및 사전회의		
4.25 (월)	사회 : 정민호 (한국기자협회 국제교류분과위원장, 코리아타임스)			
	14:00 - 14:10	개회	개회사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축사	김부겸 국무총리
			축사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대한민국 소개 동영상 시청	
	14:10 - 17:00	컨퍼런스 I	각국 언론의 팩트체크와 언론자율규제 운영 현황	
			발표1	정은령 SNU팩트체크센터장
			발표2	안형준 MBC 기자
			발표3	해외기자
	17:10 - 18:00	집단토론 I		
4.26 (화)	사회 : 정민호 (한국기자협회 국제교류분과위원장, 코리아타임스)			
	13:30 - 14:30	특강	블록체인 기반의 뉴스 생태계 권성민 퍼블리시 대표	
	14:40 - 17:00	컨퍼런스 II	언론이 변화시킨 사회	
			발표1	이민규 중앙대학교 교수
			발표2	정환봉 한겨레신문 기자
			발표3	해외기자
	17:10 - 18:00	집단토론 II		

개회사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 되길

안녕하세요. 한국기자협회 회장 김동훈입니다.

2022년 세계기자대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각국 기자 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년 남짓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 기쁩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창립되어 올해로 58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기자 단체로 전국 199개 언론사 1만 1천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5대 강령중 하나인 <국제언론인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돕는다>는 취지에 따라 1966년 국제기자연맹 가입을 시작으로 국제 기자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전 세계 언론인들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세계기자대회가 어느덧 올해로 10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세계기자대회는 첫 행사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전 세계 언론인들을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인 한반도로 초청해 분단 현실을 직접 체험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널리즘의 미래를 논하고 상호 친목의 장을 확장시키며 해를 거듭할수록 세계 언론인들의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 개회사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불가피하게 3년째 온라인상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분단 현실을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온라인 공간에서나마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각국의 상황과 고민을 공유하고 언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성별, 피부색, 이념은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으로 진실을 알리고 자유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저널리스트라는 사실입니다.

2022년 온라인에서 개최되는 세계기자대회는 첫날 ‘언론의 팩트체크와 언론자율규제’를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언론 불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정보’의 근절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들여보고 저널리즘 구현을 위해 서로 도입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날에는 각국의 우수한 언론 보도 사례를 통해 언론의 역할을 되짚어보기 위한 취지로 ‘언론이 변화시킨 사회’를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토론자들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도움이 될 만한 사례가 있다면 참가자들께서도 시도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비록 온라인상으로나마 소중한 기회가 마련된 만큼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저널리스트로서의 소명을 다하고 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조언 기대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주시는 만큼 참가자들 모두 뜻깊고 유익한 자리가 되길 기원하며 올해의 컨퍼런스 내용을 동료 기자들과 공유해 언론에 대한 신뢰 회복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속히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고 여러분 모두를 한국으로 초청해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문화와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여드리길 희망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편안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김부겸

대한민국 국무총리

문명의 대전환기, 언론의 역할

존경하는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김부겸입니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세계기자대회’가 올해로 열 번째를 맞았습니다. ‘세계기자대회’는 해마다 우리 인류가 당면한 주제를 놓고 전 세계의 기자들이 참여해서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는 세계 각국의 방역 체계와 경험을 공유하며,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세계기자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귀한 자리를 준비해주신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의 발표와 특강을 해주시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의 정은령 센터장님, ‘퍼블리시’ 권성민 대표님, 중앙대학교의 이민규 교수님, 고맙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인 여러분, 인류가 코로나 팬데믹에 휩싸인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서 이제 차분히 일상회복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눈물겨운 협조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백신 접종률과 가장 낮은 치명률을 보이며 이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가져온 상처는 실로 큼니다. 국가 간, 계층 간 갈등과 불평등은 더욱 깊어

축사

졌습니다. 가짜 뉴스로 인해, 언론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백신에 대한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나 자극적인 내용들을 온라인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앞다투어 보도하고, 혼란을 부추겨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과연 무엇이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옳은 일인지 또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세계는 문명의 대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전환기에 닥쳐올 여러 도전을 이겨내려면, 무엇보다 언론이 바로 서서 길을 밝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저널리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앞으로 닥칠 가장 큰 도전 요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에서 올 것”이며,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공동체야말로 이 전환기에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께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주십시오. 그 힘으로 언론과 우리 인류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다시 한번, 제10회 세계기자대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내년 봄에는 세계 각국의 기자님들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봄을 직접 만나보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전 세계 언론인들의 흥겨운 축제가 되길

안녕하세요.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입니다. 2013년에 시작해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세계기자대회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세계기자대회는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언론인들이 모여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대한민국을 세계에 홍보하는 축제의 장입니다.

올해의 세계기자대회가 세계언론산업의 양질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하고 생생한 토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전 세계 언론인들의 흥겨운 축제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아울러 다가온 엔데믹 시대에 전 세계 관광업계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관광재단에서 올해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다양한 서울관광 홍보 사업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는 꽃피는 아름다운 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기자협회 소개

역사를 기록하는 한 줄의 글,
현장의 생동감을 전달하는 사진과 영상,
소명과 열정으로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들,
그 기자들 뒤엔 언제나 한국기자협회가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1964년 8월 17일 일선기자들의 자발적인 공감대 속에 탄생해 올해로 5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조국의 민주발전과 언론인의 자질향상, 언론자유 수호 투쟁, 회원의 친목과 권익옹호,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 회복, 국제 언론인과의 유대강화라는 5대 강령을 채택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같은 5대 강령은 한국기자협회의 존립 이유이자 지향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현재 전국 199개 회원사, 1만 1천여명의 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언론단체입니다. 협회는 매주 5만부의 '기자협회보'를 발행해 언론계 이슈를 생산하고 각종 주요 현안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을 주제로 한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 개최, 기자들의 장단기 연수, 국내 대학원 학비 지원 등을 통해 언론인의 자질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일선 기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 품격 높은 기사 생산을 유도해 저널리즘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정보(일명 가짜뉴스) 퇴출을 위해 자체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자들의 윤리 의식 고취를 위해 언론윤리강령 강화를 위한 실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또한 윤리적인 언론 문화 조성을 위해 언론현업단체들이 모여 가치 '통합형언론자율기구'를 구성중입니다. 이밖에도 세계 언론단체와 공조해 언론의 신뢰 회복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언론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매년 이웃사랑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재능기부 저널리스트 활동지원, 논술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 회원의 단합과 친목도모를 위해 해마다 전국기자축구대회와 기자 문화탐방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소개

한국기자협회는 세계 언론인들과의 유대강화 중요성을 일찍부터 깨닫고, 1966년 IFJ (국제기자연맹)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1993년 중국기자협회, 1994년 베트남기자협회, 2013년 인도네시아기자협회, 2014년 몽골기자협회, 2015년 불가리아 기자협회, 2018년 러시아 기자협회와 상호 기자 대표단을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기자협회와 우즈베키스탄 기자협회와도 지속적으로 연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 기자들과의 정기교류는 국가 간 외교를 뛰어넘어 민간외교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양국 간 화합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기자협회는 더 많은 외국 언론인들과의 네트워크를 넓혀 나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2001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기자연맹(IFJ) 정기총회와 2003년 동아시아 기자포럼, 2005년 아시아기자포럼을 개최한데 이어 2007년 국제기자연맹(IFJ) 특별총회를 서울과 북한의 금강산과 개성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중국·베트남 3국 기자들이 함께하는 콘퍼런스를 연 바 있으며, 국경없는기자회(RSF) 등 국제언론단체들과 유기적으로 교류하며 언론자유와 세계 기자들의 권익을 위해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세계기자대회를 통해 각국의 기자들과 연대를 강화함은 물론 언론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널리즘의 신뢰 회복을 위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기자협회 제48대 김동훈 회장과 집행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국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며 매의 눈으로 권력을 감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가슴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저널리즘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회원들의 권익과 복지, 그리고 민족의 대단결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는 앞으로도 국제 언론인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신뢰와 우정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시대를 앞서가는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2

24(Sun) - 26(Tue) April 2022



2022 세계기자대회

특강

블록체인 기반의 뉴스 생태계

- 약력
- 발표자료

발제자



권성민

퍼블리시
대표
한국

권성민 대표는 디지털 미디어 및 블록체인 기술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업가이다. 그는 블록체인 기반 뉴스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개발 업체 퍼블리시(PUBLISH)의 창립자이자 대표이다. 또한 그는 <이코노타임즈>(EconoTimes)와 <토큰포스트>(TokenPost)를 포함한 두 개의 디지털 외신 뉴스 웹사이트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그는 2012년 외환시장 전문 뉴스통신 기업인 에프엑스와이어프로(FxWirePro)를 창업하여 무디스 투자자 서비스(Moody's) 및 시카고 거래소 그룹(CME Group)과 같은 글로벌 금융 기관에 뉴스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2022 세계기자대회



블록체인 기반 뉴스 생태계

Read & Ea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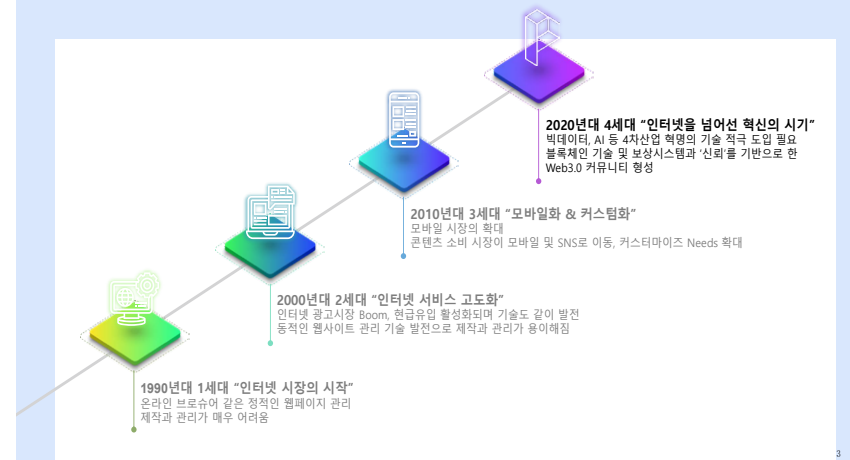
Copyright © 2022, PUBLISH Inc.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 인터넷기반 뉴스 생태계
- 문제점 & 해결책
- 유스 케이스
- 로드맵
- 퍼블리시 소개



미디어의 변화



미디어의 변화



미디어의 미래는 토큰화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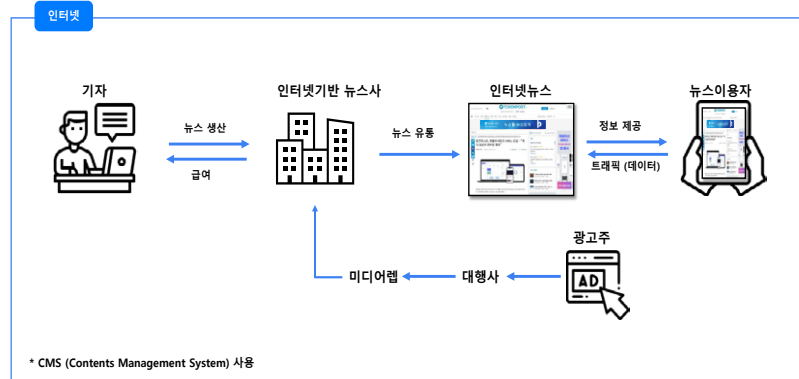
- 2019년5월8일, 세계신문협회 'PUBLISH Asia'

현재 언론 산업은 대부분의 수익이 광고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익 모델은 광고주의 유착 관계를 형성하여 언론은 광고주의 비리, 혹은 부도덕한 행위를 쉽게 보도하지 못하게 되었다.

언론이 미래로 나아가야하는 길은 자체 암호화폐를 기존 시스템에 도입하여 독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광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

인터넷기반 뉴스 생태계

인터넷상에서 뉴스 생산, 유통, 소비(이용)의 전 과정과 인터넷뉴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요소의 전체



5

인터넷기반 뉴스 생태계

인터넷상에서 뉴스 생산, 유통, 소비(이용)의 전 과정과 뉴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요소의 전체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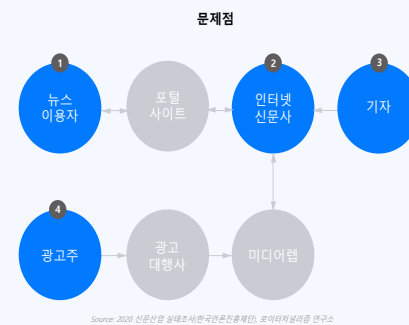
문제점 & 해결책

문제점 & 해결책

인터넷기반 뉴스 생태계 문제점 & 해결책

- 1 개인 정보 제공 보상 부재, 페이크 뉴스 환경 노출
- 2 저널리즘 원칙을 지키기 힘든 인터넷기반 뉴스 생태계
- 3 트래픽 위주의 기사 생산 구조
- 4 복잡한 유통 구조, 효율성 낮은 광고

- 1 R2E(Read to Earn) 보상과 실용적 정보 획득
- 2 직접 방문 이용자 증가를 통한 인터넷기반 뉴스사 자생력 조성
- 3 저널리즘에 입각한 기사 생산 구조 형성
- 4 유통 구조 간소화, 광고 효율성 제고



Source: 2020 신문산업 실태조사(한국언론진흥재단, 보아리저널리즘 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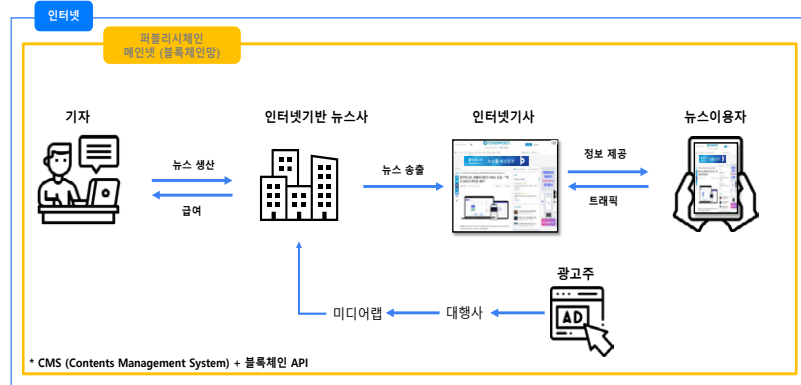
8

문제점 & 해결책

블록체인 망 내 뉴스 생태계 형성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미디어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 인터넷기반 뉴스사의 자생력 조성

PUBLISH



9

문제점 & 해결책

블록체인 기반 뉴스 생태계 구축

PUBLI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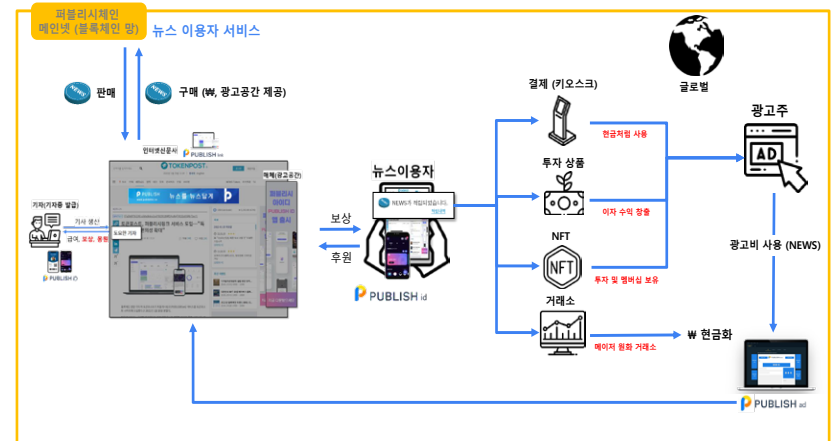


10

문제점 & 해결책

블록체인 기반 뉴스 생태계 구축

PUBLISH



11

요약

블록체인으로 자생 가능한 인터넷기반 뉴스 생태계 구축

PUBLISH



* 베이크뉴스: 뉴스 형태를 띠고 있지만 허위로 조작된 정보

12

유스 케이스

PUBLISH

유스 케이스

블록체인 보상 위젯 API - PUBLISH link

PUBLISH

2022년 5월까지 CBT 진행 - 계약 후 순차적으로 도입 (47개 언론사 계약 완료, 714만명 순방문자 보유)

이용자용

*현재 도입 완료된 12개 언론사

뉴스이용자

뉴스방문

뉴스방문

*통합 로그인 1회 필요

프라이빗제

세이프타임즈

관리자용

독자와 언론사의 연결 고리가 되는 고객 보상 기반의 API 서비스

메인 (종합자식) | 통계 (활동 내용 집계)

예시 - 클릭

리워드설정 (보상규모설정) | 교환 (포인트<->NEWS)

Confidential

Source: PUBLISH 제공자료 15

유스 케이스

토큰포스트 - R2E(Read to Ear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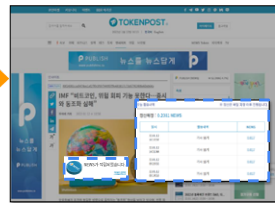
PUBLISH

뉴스 보고 보상을 얻으며 사이트 내 유저의 활동 극대화, 광고 없이 '토큰포스트' 좋은 지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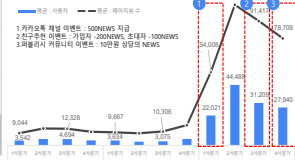
운영사	뉴스미디어	월간방문자	페이지뷰/유저	이탈률	채류시간	
PUBLISH	PUBLISH	Tokenpost	308,800	4.3	46.6%	4:14
한겨레	The Hankyoreh	Coindeskorea	599,600	1.5	67.0%	2:41
SPERO	SPERO Partners	Coinreaders	724,400	2.1	59.7%	2:23
한국경제	Hankyung Media Group	bloomingbit	59,900	2.0	55.6%	1:53
BTC Media	BTC Media (Co-founded Ethereum founder Vitalik)	Blockchainpress	50,600	1.9	63.0%	1:23
서울경제	The Seoul Economic Daily	Decenter	49,000	1.8	64.2%	2:00
매일경제	Maeil Business Newspaper	D.STREET	47,100	2.8	43.4%	2:29
Average			251,585	2.34	57.07%	2:26

2022.03 Alexa, Google Analytics

토큰포스트 보상내용



토큰포스트 사용자 지표



14

유스 케이스

한국기자협회 Press DID

PUBLISH

기자들을 위한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

신뢰 및 보안 확보

- 모바일 기자증, 소유권 증명 (Proof of ownership)
- 진본성 증명 (Proof of authenticity)
- 무결성 증명 (Proof of integrity)

도용 및 대여 방지

- 본인인증기관의 온라인 본인 인증
- + 모바일 기자증 제시시 블록체인 인증

간편성

- 국회, 청와대 등 기관 출입기자는 신분 증명을 위하여 기존 물리적 명함,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 여러 서류 준비 불필요



16

한국기자협회 Press D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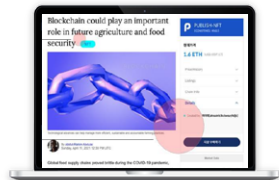
모바일 기자증 오프라인 활용 : 출입인증, 참여자격 확인



유스 케이스

기사 NFT (Non-Fungible Token)

기사 NFT화 후 멤버십 서비스 제공



스토리텔링 + 콘텐츠 + 대외협력
-> NFT 발행 = 멤버십, 가치 상승

신문사 NFT 활용 예제



- LA 타임즈에서 2022년 미식축구 NFL 슈퍼볼 우승 기념 LA 램스 NFT 발행
- 블록체인 업체와 협력
 - 판매 시작하자마자 완판
 - Collectible \$30(한화 약 3만6천원)
 - Collectible \$50(한화 약 6만원)
 - 현재 입찰가 평균 \$650(한화 약 78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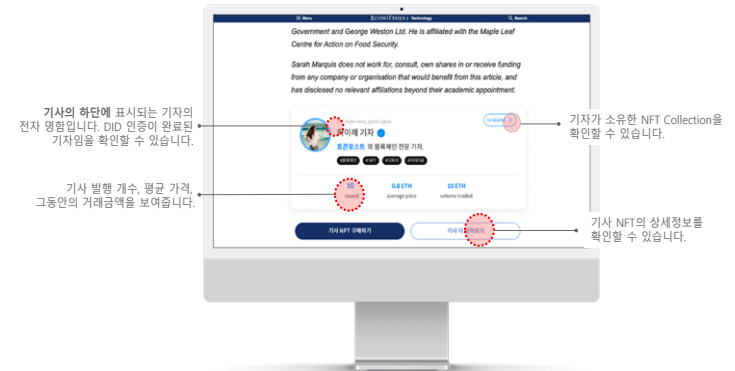


- SCMP 뉴스기사 미스터리 박스 판매
- 역사적 사건 보도 묶음
 - 역사적 중요도 4단계 '희귀 등급'
 - 2시간만에 완판
 - 총 판매액 1억 5천만원
 - 개당 12,000원
 - 시리즈 1부, 2부 기획

유스 케이스

기사 NFT

기자와 독자의 니즈를 연결하여 기사의 NFT의 구매를 제공하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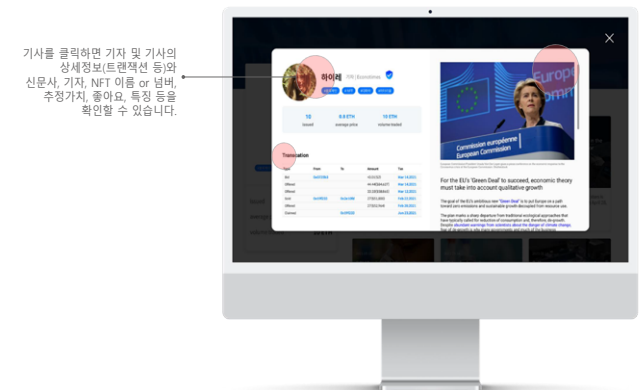


PUBLISH

유스 케이스

기사 NFT

기자와 독자의 니즈를 연결하여 기사의 NFT의 구매를 제공하는 서비스



PUBLISH

로드맵

PUBLISH

로드맵
국내 넘어 글로벌까지 사업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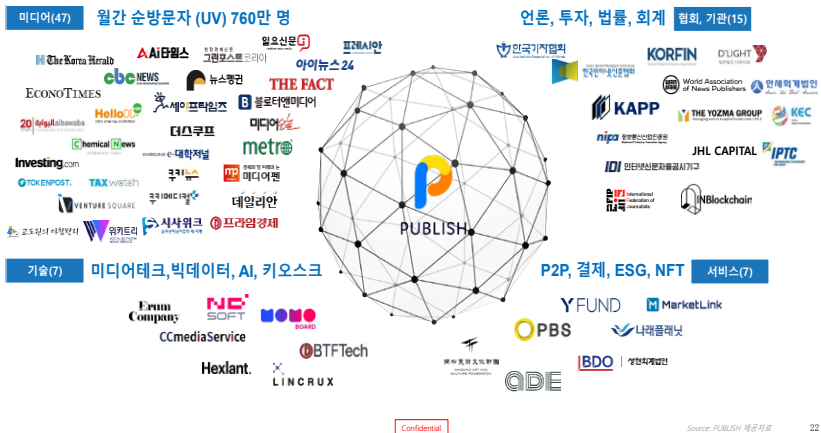
2022	2023	2024	2025 - 2026
1.5백만 명 유저 1,000 파트너 한국, 일본, 인도	2천만 명 유저 5,000 파트너 동남아시아	1억 명 유저 10,000 파트너 유럽 및 아프리카	5억 명 유저 50,000 파트너 북아메리카 사업 확장
PUBLISH ID & PUBLISH link PUBLISH mint 런치 NEWS pay 런치	PUBLISH 기반 뉴스앱 런치 PUBLISH fact 런치	PUBLISH 오픈소스 플랫폼 출시	PUBLISH Ecosystem Cycle

Confidential

Source: PUBLISH 제공자료 23

로드맵
퍼블리시 얼라이언스

PUBLISH



Confidential

Source: PUBLISH 제공자료 22

퍼블리시 소개

PUBLISH

퍼블리시 소개

기업 소개

건강한 뉴스 생태계 확산을 통해 세계 언론의 혁신을 주도



회사명	퍼블리시㈜
대표자	권성민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유로 49길 17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2길 12
설립년도	2018년 10월
주요사업	인터넷 신문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생산 솔루션 개발 NFT, DID, DeFi 서비스 (생태계 구성) B2B / B2C 서비스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 연결 플랫폼 [PUBLISH link] 블록체인 기술 API - 보상, 뉴스 검증 [PUBLISH ID] 탈중앙 신원인증(DID) 플랫폼, 전자지갑, NFT [PUBLISH mint] NFT 플랫폼 서비스 [PUBLISH ai] 뉴스 추천 AI



Confidential

Source: PUBLISH 제공자료

감사합니다

Thank you



퍼블리시 소개

회사 연혁

연도	업라이선스	사업/서비스	수상/인증
2022	고도성의 사원센터 World Vision NFTSTAR 뉴스리퍼	퍼블리시 뉴스와기술 연구소 개소 블록체인 기반 보상 서비스 PUBLISH link 도입 LINC RUX NEWS Pay 개발 및 활용처 도입 기획	개인정보전문기관(KAPP) 정회원 등록 ISO 9001:2015(품질경영 국제 표준) ISO 37001:2021(윤리경영시스템) ISO 37001:2016(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UBD RISTI (주) 한국인터넷기반 뉴스협회 MOU (지속 가능한 언론 생태계 조성) 한국기자협회 MOU 체결 (DID 기반 기자협회 회원증 발급) 국회기자연맹 (FJ) 정책회의 스피치 (DID 기반 기자증 발급) 마켓링크MOU체결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 교류)	PUBLISH Alliance 퍼블리시 오픈이벤트 파트너 1차, 2차 공개 세계 최초 국보급 NFT 발행 진행 (혼란정음 해결본 NFT)	한국인터넷기반 뉴스협회 '2021 인터넷기반 뉴스 언론윤리대상' 우수상 수상 Xangle 정글 신용도 평가 우수(Solid) BBB 등급
	IDI 인터넷기반 뉴스저용공시기구(IDI) MOU	PUBLISH ai PUBLISH ID (DID) 출시	TADS AWARDS TADS AWARDS NFT 최우수상 수상 (혼란정음 NFT)
2021	한국인터넷기반 뉴스협회 MOU (지속 가능한 언론 생태계 조성) 한국기자협회 MOU 체결 (DID 기반 기자협회 회원증 발급) 국회기자연맹 (FJ) 정책회의 스피치 (DID 기반 기자증 발급) 마켓링크MOU체결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 교류)	PUBLISH Alliance 퍼블리시 오픈이벤트 파트너 1차, 2차 공개 세계 최초 국보급 NFT 발행 진행 (혼란정음 해결본 NFT)	한국인터넷기반 뉴스협회 '2021 인터넷기반 뉴스 언론윤리대상' 우수상 수상 Xangle 정글 신용도 평가 우수(Solid) BBB 등급
	IDI 인터넷기반 뉴스저용공시기구(IDI) MOU	PUBLISH ai PUBLISH ID (DID) 출시	TADS AWARDS TADS AWARDS NFT 최우수상 수상 (혼란정음 NFT)
2020 ~ 2018	NC+ SOFT 엔디소프트 MOU 체결 완료 (국내 최대 CMS 서비스 기업) (2020) KLD 한국인명방송연립(KLB) 뉴 미디어 플랫폼 개발 체결 (2020)	PUBLISH ai with 블록체인의 기반 인터넷 신문 솔루션 PUBLISHsoft (CMS) 출시 (2019) (포문 보상 시스템, 뉴스 검증) PUBLISH 퍼블리시㈜ 법인 설립 (2018)	금융감독원 금융원 사보 검증된 이야기 (2020) (블록체인 사적 유증) SIP 창업진흥원 주권 팀 드레이퍼 (Tim Draper) 부회 IR 피칭 1위 (2020) KVCA 퍼블리시 벤처기업 인증 (2020)

Confidential

Source: PUBLISH 제공자료

2022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2

24(Sun) - 26(Tue) April 2022



2022 세계기자대회

콘퍼런스 II

언론이 변화시킨 사회

- 약력
- 발표자료

2022년 4월 26일(화)



컨퍼런스II		
주 제	언론이 변화시킨 사회	
사회자	정민호 코리아타임스 디지털 콘텐츠 팀장 한국기자협회 국제교류분과 위원장	171
발제자	아메드 자밀 이브라힘 Asian Television, 뉴스 및 시사 고문, 방글라데시	172
	레테아 판 The Post Media, 리포터, 캄보디아	176
	소팔 차이 Cambodia News, 고문 겸 칼럼니스트, 캄보디아	179
	양헬 갈린도 Thepharmaletter, 남미 특파원, 콜롬비아	182
	아시라프 엘달리 The Silk Road Literature Series, 편집장, 이집트	185
	빌랄 바살 아시아기자협회, 기자 겸 예술 평론가, 프랑스	188
	하산 후메이다 독일 킬 연구소/킬 대학교, 교수, 독일	191
	군짓 스라 Subculture Media, 편집자, 인도	194

2022년 4월 26일(화)

발제자	네하 반카 기자, 인도	197
	아메드 쿠르니아 수에리아위자자 인도네시아기자협회, 해외 담당 팀장, 인도네시아	199
	바얀 라마자노바 카자흐스탄기자연합회, 사무국장, 카자흐스탄	203
	이민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한국	207
	정환봉 한겨레, 기자, 한국	212
	누르잔 카스말리에바 Kabar News Agency, 국제부 에디터, 키르기스스탄	215
	노릴라 모흐드 다우드 Malaysia World News, 편집장, 말레이시아	218
	아룬 란지트 Foreign Affairs News, 편집국장, 네팔	222
	비시누 니스트리 아시아기자협회 네팔지부, 편집장, 네팔	225
	고카르나 아와스티 네팔상공회의소 연맹, 정책관, 네팔	227
	라홀 아이자즈 Film N' Chips Media Productions,작가·필름 제작자·기자, 파키스탄	230

2022년 4월 26일(화)

발제자	벤자민 페르난데즈 Radio Libre, 편집이사, 파라과이	234
	아이반 림 (신친) 싱가포르환경기자클럽, 편집자, 싱가포르	237
	레오 니로샤 다르산 사타시밤 Express Newspapers Ceylon Limited, 뉴스 매니저, 스리랑카	240
	딜무로드 주마바에브 아시아기자협회,특파원,우즈베키스탄	243
	란 풍 (란 쿠티) Dantri Online Newspaper, 편집자, 베트남	246

사회자



정민호

코리아타임스 디지털 콘텐츠 팀장
한국기자협회 국제교류분과 위원장

정민호는 코리아타임스의 디지털 콘텐츠 팀장 겸 한국기자협회 국제교류분과위원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



2022 세계기자대회

발제자



아메드 자밀 이브라힘

Asian Television
뉴스 및 시사 고문
방글라데시

아메드 자밀 이브라힘은 영문학 학사를 마친 후 영어 및 언어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로컬 거버넌스 및 공공 행정에서 학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영국 IDS(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에서 '시민 사회 봉사'에 대한 고급 교육을 받았고 방글라데시 언론 연구소(PIB)에서 저널리즘 학위를 받았다. 그는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CARE International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미국 국무부, 미국 정부로부터 전략적 리더십 개발에 관한 2012년 비영리단체(미국)을 수상한 경력도 있다. 자밀 이브라힘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분야, 특히 프로그램 설계, 개발 및 구현 분야, 시민 사회와의 관계 구축, 정책 옹호 캠페인, BCC/IEC 자료 개발 및 정보 보급, 훈련 촉진, 중재에서 25년 이상의 전문적인 경험을 갖고있다. 또한 그는 BBC 런던, 더데일리스타, 더 데일리 프로툼 아로, Action Aid, 세이브 더 칠드런을 비롯한 유명 국내 및 국제 기관과 협력했다. 현재 그는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그는 USAID/BRAC 대학의 저널리즘 훈련 및 연구소 설립자 전무이사였다. 현재 North South University - NSU(홍보, GoB 관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및 국내 및 국제 파트너십 담당)의 이사이자 Asian Television Limited의 뉴스 및 시사 수석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아메드 자밀 이브라힘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뉴스의 소셜미디어의 영향

A. 소개

언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시민들이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예를 들어 선거 참여방법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이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비판할 권리가 있다는 '언론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원칙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때문에 가능해진다.

언론은 뉴스는 물론 조사 보고서, 논쟁, 토론, 배경 및 분석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질문시간(Question Time)"과 같은 프로그램은 정부, 정치인 및 기타 공무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논문의 발표자는 TV/라디오 채널에서 유사한 실시간 대화를 설계, 진행했다.

언론은 정치인이 유권자의 뜻을 이해하고 직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정치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공공 '감시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

언론이 사건에 대해 진실되게 보도하지 못한다면 중요한 정보가 숨겨지고 유권자는 어둠 속에 남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언론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일반인들의 견해와 우려는 듣지 못할 수 있다.

B. 언론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

왜 언론은 여전히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지금까지 줄곧 있어왔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언론과 언론인은 5가지 방식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고 있다.

- 1.보이지 않는 정부 즉 제4부
- 2.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 3.윤리강령

■ 아메드 자밀 이브라힘

- 4.여론 형성을 위한 콘텐츠 제공
- 5.삶의 질 개선

1. 보이지 않는 정부의 제4부

언론인은 단순히 작가, 편집자, 뉴스 앵커가 아니다. 언론인은 본질적으로 사회의 감시자이며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를 가장 옹호하는 사람들이다.

미국 헌법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 보장은 언론인은 정부의 검열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기사가 공개되거나 방송되는 것을 막으려는 사전검열(prior restraint)도 금지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2.오리지널(원본) 콘텐츠 제작

우리는 누구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 플랫폼에서 모든 것을 리트윗하고 다시 게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일부는 실제 기사를 다시 게시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소문을 게시할 수도 있다.

기사가 게시물이면 오리지널(원본) 콘텐츠다. 누가 원본 콘텐츠를 만드는가? 언론인들이다. 언론인들은 자신의 기사에 실린 사실들의 출처를 정확히 찾아내야 한다. 즉, 언론인들은 조사를 통해 팩트를 밝혀내는 것이다.

조사도,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떠도는 뉴스는 증명하기 힘든 밈이나 일련의 루머에 불과하다.

3. 윤리강령

스스로를 언론인이라 정의하는 모든 개인은 윤리강령에 따라 일한다. 미국의 전문언론인 협회(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는 모든 언론인이 준수해야 하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 1)진실을 찾아 보도하라
- 2)피해를 최소화하라

■ 아메드 자밀 이브라힘

- 3)독립적으로 행동하라
- 4)책임감을 갖고 정직하라

언론윤리상 언론인은 정직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정보를 자유롭게 교환토록 하며 동시에 기사의 완결성을 높여준다.

4. 여론 형성을 위한 콘텐츠 제공

언론인은 자료 등을 통해 팩트를 조사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한다. 그들의 기사는 복잡한 문제를 쉽게 풀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언론인은 문제를 세상에 드러내며 동시에 해당 사안의 이면도 파헤친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지적인 담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삶의 질 개선

언론인은 진실을 찾고 그것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직업인이다. 따라서 그들은 공정한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뉴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언론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언론은 최고의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언론계는 21세기에 폭발했다. 이 직업에 관심 있는 많은 이들은 일반인이 삶을 개선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관련 직업을 찾을 수 있다.

C. 앞으로의 방향/권장사항

- 언론과 언론인은 정책 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동시에 정부기관과 민간조직이 이 분야를 홍보할 수 있다.
- 언론인의 역량을 구축하고, 윤리 및 표준에 관한 언론인 교육 및 역량구축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조직한다.
- 언론인 및 미디어 전문가가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발제자



레테아 판

The Post Media
리포터
캄보디아

레테아 판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거주하고 있으며 Norton 대학교에서 영문학 석사, 캄보디아 전문 대학에서 법학 석사, 프놈펜 왕립학교에서 크메르 예술 학사를 취득했다. 그는 현재 12년 이상의 저널리즘 경험을 바탕으로 번역가 및 기자, The Post Media에서 부편집장으로 근무하며 크메르어로 일간 기사를 작성하고 영어로도 진행을 하고있다.

사회변화를 위한 저널리즘의 역할

오늘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의존한다. 현대사회에서 신문은 단순한 뉴스 소스 그 이상이다. 신문은 정보의 보고이며, 대중들에게 비판의 도구이며, 여론 창조자이기도 하다.

언론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론이 여론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언론은 길거리 사람들의 정치적인 견해를 대변한다.

신문에는 데스크와 편집자가 있다. 이들은 타 기관, 기자, 특파원들로부터 들어온 뉴스를 편집하고 면별 배치를 하여 신문을 완성한다. 이들은 헤드라인을 정하고 때로는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다.

기자들은 '특종'을 터뜨린 후 사람들의 반응과 의견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언론은 대중의

레테아 판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파괴하기도 하며, 무명의 개인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도 한다. 또한 세상 구석구석에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여론을 형성한다. 언론은 단순보도 그 이상이다. 언론인은 사건을 취재해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려 한다.

사회변화를 위해 언론은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슈를 발굴하고 때로는 정책홍보 역할도 수행한다. 기자들은 한번 보도한 뉴스에 그치지 않고 후속 취재를 통해 업데이트하며 새로운 사실을 계속 발굴해낸다.

대부분 독자나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얻는 창구는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는 뉴스다. 언론이 없다면,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알 재간이 없다.

기자들은 여러 곳을 기웃거리며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다. 언론은 종종 기사의 핵심이 되거나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정보를 캐내는 데 주력한다.

탐사보도 기자는 기사를 후속 취재하는 동안 유력한 용의자를 만나고, 목격자나 증인으로부터 정보를 얻기도 한다. 탐사취재 도중 호기심 외에는 마치 자신이 기자가 아니라 보통사람인 것처럼 어떠한 동기도 없는 듯이 행세한다.

언론보도는 사안에 대한 단순한 의견만이 아니라 정보와 경험, 그리고 고도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통찰을 제공한다.

따라서 기사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는 여론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새 법률에 대한 찬반양론을 비교하는 기사를 쓸 경우, 우리는 이를 위한 논거를 제공해 독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준다.

언론은 특별한 사회관습에 대해 대중의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고, 다른 한편 해당 관습에 대한 대중의 인식수준을 높여 이를 법으로 금지시키도록 일조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언론인은 사회 및 정치변화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것이 바로 언론이 편견을 배제한 채 중립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이유이다.

언론은 또한 공인에 대해 독자들에게 알릴 권리와 책임이 있다. 대중들은 공인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레테아 판

공인이라고 해도 그들의 사적인 삶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럼에도 공인에 대해 취재할 때는 절제된 행동을 해야 한다. 따라서 매니저나 홍보팀이 주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 공인의 이미지는 통상 흠이 없는 것처럼 비친다.

하지만 최첨단 장비를 갖춘 언론 덕분에 이들이 흠결 없는 이미지를 유지하기는 더 이상 쉽지 않다. 공인이 중대한 실수를 할 경우 이를 대중에게 숨기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얘기가.

마지막으로 활기찬 민주국가에서 언론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중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격려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이를 위해 언론인은 사회문제와 정책형성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무관심한 대중을 계몽하는 일도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발제자



소팔 차이

Cambodia News
고문 겸 칼럼니스트
캄보디아

소팔 차이는 캄보디아 뉴스의 수석 고문이자 칼럼니스트이다. 그는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교수로 재직중이기도 하며, 2000년에 설립된 캄보디아 언론인 클럽의 창립자이자 고문이다. 캄보디아 왕립아카데미 정치학 박사 학위와 필리핀 마닐라 아테네오 대학 언론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나라로의 여행 경험을 갖고있다.

언론인은 사회를 바꿀 수 있다

먼저 '사회'라는 단어에서 시작하려 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용어다. '사회'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공통된 전통, 신념, 이념 및 이해관계로 묶인 커뮤니티나 클럽, 조직, 협회, 노조, 국가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룹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는 서양, 동양, 중동, 개발도상국 등 여러 유형의 사회가 공존하고 있다.

언론인은 이러한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감시자'이자 '문지기' 역할을 한다. 각자의 사회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공정성, 균형감, 책임감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대중에게 기사를 통해 다가간다. 언론인이 알하지 않는 곳은 무료하기 이를 데 없으며 매일매일 어떠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지 아무도 알 길이 없다.

언론인, 특히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언론인이 없다면 부패, 인권침해, 인신매매(특히 여성 및

■ 소팔 차이

아동 인신매매), 아동의 성 및 노동 착취, 마약 밀매, 질 나쁜 공공 서비스, 기타 사회 문제, 심지어 종교와 문화적 극단주의 등의 부정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언론인과 그들이 쓴 기사가 없다면 부정적인 이슈는 은폐되기 쉽다. 시민들이 고통받는 동안 권위주의적이고 군사적 통치자들은 물론 권력자와 심지어 자신들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맘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언론인의 역할은 엔터테인먼트를 포함해 때로는 부정적이고 때로는 긍정적인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리더, 정책 입안자 및 기타 의사결정권자는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법률 및 정책을 수정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의 개인 및 집단 혹은 기관의 태도 또한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자들은 또 특집기사나 뉴스분석, 오피니언, 탐사보도, 포럼 및 토론회, 콘퍼런스 등의 활동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의 투명성과 건전한 거버넌스 및 정책 개혁 등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언론 기사와 보도를 통해 사회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상호 정보를 공유하며 일상 생활에서 이해관계에 반하는 문제에 함께 맞설 수도 있다.

전 세계의 여러 사회에서 수많은 언론인이 그들이 쓴 비판적인 기사로 인해 살해되거나 고문당하고 투옥되었다. 이제 소셜미디어와 시민기자는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으며 사회 변화의 일부로 받아들여진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소셜미디어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게시하고 공유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전문언론인에게는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추가로 기사를 작성하고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언론인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언론인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캄보디아의 사례 둘을 소개한다.

1. 외딴 산악지대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소수민족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인간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산모가 아이 출산 후 바로 사망하는 경우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살아 있는 아기를 죽은 산모와 함께 매장하는 것이었다. 그런 끔찍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정부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법에 위배되는 범죄로 금지시켰다.

■ 소팔 차이

2. 두번째는 콘돔 사용에 관한 것이다. 문화 규범 때문에 캄보디아인과 일부 아시아인은 콘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불쾌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이 이에 대해 반복적으로 보도하자 사람들은 콘돔이 안전한 성관계와 생식기 건강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 자주 보도함으로써 캄보디아 사회는 출산 터울과 에이즈 및 성병 감염을 언급하는 등 콘돔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언론인의 역할을 인정하여, 정보부를 통해 포상토록 했다. 2022년 3월 24일 정부는 지난 1970년대 이후 오랜 경력을 쌓고 캄보디아 사회에 기여한 베테랑 언론인 14명을 시상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당국에 취재 중 구속된 언론인을 석방하고 언론자유와 정보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언론인은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적이고 윤리적으로 활동하길 호소한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이 가능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사를 쓰길 바란다.

우리 모두는 함께 가짜뉴스 및 가짜정보에 맞서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하며, “진실은 가짜를 이긴다”, “진실이 타락을 막는다”는 격언을 실현해야 한다.

세계 곳곳의 언론인,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론 기타 분쟁 지역에서 일하는 언론인들의 안전을 기원한다. 핵무기가 없는 안전한 지구를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평화다. 핵무기 대신 세계는 기후변화, 테러와의 전쟁, 마약 및 인신매매 근절 등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발제자



앙헬 갈린도

Thepharmaletter
남미 특파원
콜롬비아

앙헬은 스페인어 및 영어 전문 교사이자 12년 경력을 갖춘 프리랜스 기자다. 또한, 2014년, 2020년, 2021년 세계기자대회에 초청된 이력을 갖고있다.

시티즌 미디어의 긍정 및 부정적 효과

시민언론의 개념은 2000년 한국의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프로그램과 함께 등장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오연호 기자는 다양한 출신의 인사들에게 자신들의 커뮤니티 소식을 소개할 기회를 주었다. 오연호 기자가 창간한 오마이뉴스의 모델이 바로 그것이다. 그 후 세계각국의 여러 언론들이 이 아이디어를 채택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2017년에 절정에 달했다. 일부 주의 시민들은 자신이 참여한 시위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고 전국의 주요 TV채널에 의견을 보냈다.

중남미에서는 콜롬비아 최대 뉴스 매체인 <Casa Editor El Tiempo> 소속 지역 TV채널인 'City TV'와 2위 미디어 기업인 RCN가 각 커뮤니티에서 지역의 안전 및 인프라 문제를 호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즉각적인 해결책이나 적어도 해결에 도움 되는 문제의 원인과 가능한 아이디어를 얻고자 한 것이다.

필자는 짧은 언론사 리뷰와 함께 이들 언론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표현방식이

앙헬 갈린도 |

세계적으로 오해를 일으키거나 잘못된 정보의 원천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언론의 협력 필요성 및 방법을 제안하려 한다.

이 새로운 방식의 언론은 범죄, 자연재해 또는 커뮤니티 문제의 피해자들이 별도의 검열 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들은 TV 뿐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문제를 게시하고 해결할 책임이 있는 당국에 답을 구할 수 있다.

시민언론에는 세 가지 주요한 방법이 있다.

첫째, 일반인들이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소셜미디어, 블로그, 그리고 대중매체에 업로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정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는 제공하지 않는다.

둘째, 일부 미디어가 이러한 시민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전문 언론은 시민의 이야기나 커뮤니티의 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서술한다. 이를 통해 특정 질문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당국으로부터 답변을 구하도록 돕는다.

이러한 언론 방식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은 현재 소셜미디어, 비디오 블로그, 신문 및 크라우드 펀딩 조직에서 공간을 확보하고,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얻거나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견과 실제 정보 사이의 경계를 확립하지 못하여 문제나 커뮤니티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라는 본래 목적을 잊기도 한다. 특히 특정 정치사회 이념을 퍼뜨려서 지역이나 문제에 대해 건전한 토론을 통해 사실에 기반한 여론을 형성하기보다 논리적 근거 없이 급진적인 선동만 일삼게 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방식의 언론이 발전하면서 기존 언론은 신뢰를 많이 잃었다. 일부 시민기자들은 사건을 소개하는 것만으로 유명인사가 되었다. 왜냐하면 뉴스나 정보에 대해 분석적이고 깊이 있는 관점을 여과없이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언론은 중립성을 훼손했다. 여러 이해관계에서 나오는 의견을 뉴스와 분리시키지 않고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견해를 띠는 바람에 독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고 말았다.

■ 앙헬 갈린도

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시러큐스대학은 기자를 지망하는 시민들이 지켜야 할 4가지 원칙을 정했다. 그것은 △관찰하지만 사건 보도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정보의 중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점을 선택하거나 사실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는 것을 '삼가'하고 △전문 언론인처럼 공공장소에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문서화하며, △해당 정보를 커뮤니티 또는 뉴스기관과 공유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뉴스를 보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간단한 규칙들을 잊고 사건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소셜미디어 제작자들은 중립성 없이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언론 프로세스의 표준인 객관성이란 황금률을 망각한 채 이슈에 대한 하나의 관점에만 관심을 집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언론은 전문 언론인의 지식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민언론이 입수한 정보를 구성하고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돕는다. 사건의 사실에 대한 인식을 조작 또는 변경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커뮤니티에 진정으로 필요한 해결책을 얻는 데 요구되는 객관성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시민 언론은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삶과 문제를 보도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중요한 정보의 출처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가 독자가 필요로 하는 품질을 갖출 수 있기 위해서는 시러큐스대학이 수립한 중립성과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발제자



아시라프 엘달리

The Silk Road Literature Series

편집장

이집트

아시라프 엘달리는 아시아기자협회 회장이며 The Silk Road Literature Series 편집장이다. 30년동안 문화 저널리즘에서 근무했으며 33개국에 그의 여행 기록을 게시했다. 또한 그는 40권의 책을 저술 및 번역까지 담당했었다. 그는 2014년 대한민국에서 만해문학상, 2015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아랍언론문화상, 2021년 이스탄불 LIFFT 유라시아 문학 페스티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경력의 보유자다. 그는 코스타리카, 인도, 타타르스탄 및 아프리카에서 열린 글로벌 행사의 임원 및 심사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진지함이 핵심이다

나는 어렸을 때 언론인을 꿈꾸었다. 출장을 가고,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악당을 쫓고, 진실을 전하고, 과학을 활용하고, 선한 사회기관과 손을 잡고, 부패를 폭로하는 모험을 하는 젊은 언론인의 이미지만을 마음에 그렸다.

여러 재능과 수단 그리고 목표를 가진 이러한 이상적인 언론인의 이미지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이자,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의미지다.

필자는 이 짧은 글을 통해 변화를 이뤄내려는 사명을 지닌 언론인의 유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 아시라프 엘달리

이는 30년 넘는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부문에서의 내 경험의 산물이자 폭넓은 독서 및 집중적인 팔로업을 통해 얻은 결론이다.

1. 훌륭한 언론인은 진실을 대변하고 사회를 돕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이는 말과 글을 통해 인정받게 것이다.
2. 훌륭한 언론인은 전통 방식과 현대적인 방식을 모두 이용하여 소통해야 한다. 사회는 필요한 유형을 수용할 것이다.
3. 훌륭한 언론인은 수치, 그림, 도표 이상의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는 추상적인 숫자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4. 훌륭한 언론인은 좋은 연구자다. 언론인은 사회 문제에 대해 더 좋은 해결책을 탐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언론인은 집중적인 독서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5. 훌륭한 언론인은 편협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관습을 거부하고 나와 다른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
6. 훌륭한 언론인은 과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언론인은 과학에 반하는 잘못된 내용이나 의견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
7. 훌륭한 언론인은 믿음직하고, 정직하며,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 취재원이 언론인을 신뢰하면, 진실을 보도할 수 있다. 정직한 언론인은 믿음직하다. 배려하는 언론인은 사람들의 맥박을 느낄 수 있다.

지난 10년간 변화를 갈구해온 중동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자유, 그리고 사회정의를 원하였지만 이를 얻지 못하였다. 사람만 바뀐 채 동일한 정권이 재선출되어 부패와 독재를 일삼았다. 이 선택권을 갖지 못한 사람은 파멸되고, 내전이 발발했으며, 사회기반시설은 파괴되고, 수백만명이 고국을 떠나야 했다.

불행히도 미디어가 계속해서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국민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 나는 이들 국가의 고통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비자율적인 언론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아시라프 엘달리

여러분과 나 자신에게 “해결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해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좀 더 진지해질 필요가 있다. 나는 엔터테인먼트 언론에 반대하지 않지만 ‘티테인먼트(Titainment)’나 오락성 언론(distraction journalism)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선진국만의 문제가 아닌 그야말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건강, 교육, 경제 이슈는 우리 일상생활의 중요 부분이며 기후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훌륭한 언론인의 역할은 이러한 이슈를 과학적인 태도로 전달하여 모두를 이해시키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언론이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여러 이슈들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열쇠는 진지함이다. 이러한 주제는 우리 모두가 도외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핵심 토픽이다. 인종차별, 폭력, 지구온난화 및 기타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진지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훌륭한 언론인은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진지하고 중요한 일을 하여 변화를 가져오고, 긍정적인 연쇄반응을 일으켜,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발제자



빌랄 바살

아시아기자협회
기자 겸 예술 평론가
프랑스

빌랄은 어린시절부터 그림을 그려왔던 예술가지만 그는 때때로 다른 각도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저널리스트의 시각을 갖춘 한다. 그는 전 세계, 특히 그가 20년 이상 거주했던 파리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는 많은 경험을, 특히 레바논 내전을 겪은 예술가의 견해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는 한국의 아시아 기자 협회를 비롯한 여러 국제 언론 기관에 기고를 한다. 요약하자면, 그는 예술가, 언론인, 예술 평론가, 작가 그리고 사업가이기도 하다.

언론인이 바꾼 사회인가, 사회가 바꾼 언론인가?

언론은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지역 및 세계적 수준에서 국민의 전반적인 생각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웹 미디어 시대'에 언론의 역할이 과거만큼 여전히 중요한가?

디지털 언론이 출현하고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면서 실제로 기존 언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 언론인들은 누구나 깨닫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미 많은 독자를 잃은 기존 언론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종이미디어의 존속 또는 종말 여부가 아니라 언론 정보의 신뢰성 상실에 있다. 이는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위험이 될 수 있으며, 그 위험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

빌랄 바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고 특히 상업적 수준에서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기존 언론을 부당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초창기 전자언론은 종이언론의 판매라는 개념을 무효화하고 무료로 제공했다. 이는 결국 많은 저명 언론인들로 하여금 자리를 잃게 했다. 한편으로 전자언론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되었고 언론이란 직업의 진정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지면 언론이 아니라 언론 일반에 대한 이야기다. 전자언론의 모든 장점 위에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사회에 많은 문제를 초래했고, 특히 직업, 문화, 정치, 건강이라는 구성 요소 중 어느 하나라도 최악인 사회에서 더 심각했다. 전자 언론이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특정 사회보다는 글로벌 공동체에 반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전자적 변화라는 폭풍우 속에서 언론이라는 직업은 책임이나 통제 없이 모든 사람이 언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

신문을 만드는 프로젝트는 연구는 물론 상당한 재정적 예산을 필요로 한다.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언론인들이 진지하고 깊이 있는 기사를 작성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무료로 발행될 수 있는 전자신문 제작 프로젝트와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

수천 개의 전자신문이 출현하여 사회에 영향을 미쳤다. '무료 콘텐츠' 대부분은 중산층 및 빈곤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진정한 위험은 정통 또는 전담 언론이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과 잘못된 정보로 가득 찬 전자언론의 바다로 녹아들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전자신문은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의 출현으로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언론인이 되고, 도용이든 가짜든 출처가 없는 것이기를 바라며 뉴스와 정보를 유포하고 홍보한다.

온라인 언론이 전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이러한 예들은

■ 빌랄 바살

인터넷 덕분에 빠르게 대중화되고 접근하기 쉬워지고 있다. 여기서 논의해야 할 가장 중요한 주제는 진지한 언론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권위 있고 존경받는 직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언론계의 선구자는 이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액세스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글을 쓰고, 뉴스를 게시하며, 다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실제 언론인은 과거와 같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서두에서 꺼낸 물음을 다시 던진다. 언론은 여전히 사회를 변화시킬 역량이 있는가? 아니면 사회가 이미 그들을 변화시킨 것인가? 답은 각자의 몫이다.

발제자



하산 후메이다

독일 킬 연구소 / 킬 대학교
교수
독일

하산 후메이다는 독일 킬 연구소의 영양학자, 플렌스부르크 실무중심대학 및 “Schleswig-Holstein”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점과 목표중 하나는 글로벌 지속 가능성이다. 또한 하산 후메이다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언론인이자 작가로 활동하고있다. 그는 새로운 사회에서의 문화 간 소통과 통합을 위한 출판사 “Bush Bear Publishing”의 설립자이다.

사회를 바꾸는 기자의 관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언론인들은 사회를 긍정적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언론인은 총 대신 펜, 종이, 카메라, 뉴스, 정보, 팩트와 같은 평화로운 수단을 이용하여 매일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 진실과 팩트를 전함으로써 총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행사한다.

언론인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이 행해져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와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회는 팩트에 기반한 소통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 사회 특징과 상관없이 사회공동체는 변화에 열광하며, 기회가 되는 대로 변화에 일조하고자 한다.

■ 하산 후메이다

언론인에 의해 종종 시작되는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언론인 자신과 언론, 대중 그리고 사회 전반을 잘 연결해준다.

언론인이 시작했던 사회 변화는 최근 소셜미디어와 소셜미디어가 갖는 엄청난 개발 가능성 덕분에 강화되었다. 일부 변화는 긍정적이었지만, 허위정보나 가짜뉴스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나쁜 변화도 있었다.

많은 경우 소셜미디어 메시지는 불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좋아요”를 기다리는 형식을 따른다. 이들 메시지는 거짓말이나 거짓 주장이 난무하고 인신공격이나 인종 차별적인 말들을 담고 있는 경우도 많다.

소셜미디어 남용은 사회 목표나 공동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가 사람들을 주변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서로 배척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가설이 느리게 확인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소셜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변화에 해당한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이 부재한다. 두 친구가 커피숍에서 만나 마주보고 앉아 있어도 이들은 상대의 눈 대신 휴대폰을 응시하는 경우도 많다. 헤어질 때에는 서로에게 냉담하게 인사하고 전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각자의 집으로 향한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의 남용은 인간의 가치 붕괴를 가속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의 디지털화는 사회 발전 도구가 아닌 장애물이 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 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소셜미디어의 긍정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이를 더 건전한 세상을 구축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많은 미디어 활동가들이 사람들간의 불평등을 다룸으로써 사회 변화에 기여해왔다. 이들에게 기존의 불평등을 감소시킬 근본 처방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편견을 없앴으로써 온갖 종류의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는 방식을 다루는 보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들 언론인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을 교육해왔다. 언론의 노력과 엄청난 압박 덕분에 여러 사회가 자신의 취약점을 응시하게 되었고, 사회의

■ 하산 후메이다

소수집단과 빈곤층이 더 좋은 환경과 더 많은 기회를 바탕으로 각자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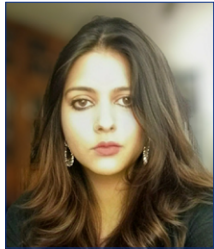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사회통합 기회를 강화하고, 모든 사람이 의무와 권리를 평등하게 다하며 공존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더 이상 사회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도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활용하여 사회를 위해 각자가 할 수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

지난 두 세기 동안 언론인들은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왔다. 언론 자유가 번창하는 곳은 훌륭한 변화의 기회가 더 많다.

코로나19 시대에 허위정보 쓰나미를 목도한 언론인과 언론은 사회가 좀 더 안전하게 발전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해야 한다.

발제자



군짓 스라

Subculture Media

편집자

인도

군짓 스라는 젠더, 인권 및 환경에 대해 열정적이다. 그는 21살부터 5년간 India Today 잡지에서 기자 겸 편집자로 경력을 쌓았다. 또한 그는 지상 보도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Open Magazine에 기자로 합류하여 지상 보도의 뉘앙스를 탐구하는 데 3년을 보냈다. 2017년에 그는 덜 알려진 이야기를 큐레이팅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서브컬처 미디어를 설립했다.

“언론의 스토리텔링은 본질적으로 진실, 윤리 및 영향력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왜 언론인이 되는가? 이에 대한 분명한 답은 스토리텔링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우리 언론인의 대부분에게 스토리텔링은 본질적으로 진실, 윤리 그리고 영향력과 결부되어 있다.

결국 어딘가 누군가가 우리의 기사를 읽고 영향을 받는 것 외에 언론인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는가? 그러나 현대에는 언론이 액티비즘이 아니라는 생각에 대해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다.

언론이 정말 액티비즘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아마도 기사가 생성되는 바로 그 사회를 거울처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가능할 것 같다.

세상이 점점 더 언론인에게 적대적이 되어 간다는 소식을 종종 듣는다. 물론 <로이터통신>

군짓 스라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진행되는 와중에 뉴스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고 한다. 전 세계 응답자의 44%가 “대부분의 경우, 대부분의 뉴스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언론인이 사회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관한 세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이 예들은 언론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오늘날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2018년 인도 마하라시트라(Maharashtra) 사탕수수 지대 여성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위해 자궁절제술을 강요 받는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보도가 알려지면서 2019년 국가여성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f Women)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여성위원회는 보건부에 관련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어 7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직되고, 사립병원은 자궁절제술을 하려면 구역 외과전문이나 위생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었다.

인도 최대 석탄 지구인 차티스가르(Charhtisgarh)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안림 중의 하나인 하스데오 아라드(Hasdeo Arad)와 이 지역 원주민인 고대 곤드(Gond) 부족의 고향이다.

급속한 산업화와 터전 상실을 우려한 곤드공동체는 공동체 액티비즘의 수단으로 언론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아다니(Adani)와 같은 거대한 재벌과 맞서 저항을 지속할 정도로 무장하게 되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시위인 인도농민시위(Famers Protest)는 논란이 되는 3개 법안 도입에 반대하여 이를 폐지시켰다. 농부들은 시위의 중심에 독립언론을 두고 농업 기업화 압박 문제를 제기하였다.

젊은 언론인이 시작한 <트롤리 타임즈>(The Trolley Times)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장뉴스를 전달하는 무수한 독립기자들의 뒷받침을 받았다. 농민시위는 속보가 생성되고 확산, 논의된 후 잊혀지는데 24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변화무쌍한 문화운동의 역학 속에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중요 역할을 제시하는 연구사례가 되었다.

역동적이고 변덕스러운 디지털 세상에서 사회의 안녕은 뉴스를 통해 측정 가능하고,

■ 군짓 스라

뉴스의 소비와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언론이 민주주의의 네번째 기둥으로 불리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언론의 가치와 책임이라는 말 자체가 이를 대변한다.

발제자



네하 반카

기자
인도

네하 반카는 인도 콜카타에 거주하는 기자다. 네하는 한반도, 아프리카, 국제 국경, 외교 및 인도를 중심으로 아시아에 대해 보고하는 기자다.

언론은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토론의 주제는 '언론인이 변화시킨 사회'인데, 필자의 질문은 언론이 과연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제 뉴스매체를 모니터링 하다보면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가 특정 뉴스를 강조하거나 비판한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든지 아니면 이를 정정했다는 헤드라인 및 기사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도 아니고 인도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여기에서 언론이 실제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언론의 중요성과 역할은 잘 알려져 있지만, 언론인이라는 직업이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언론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네하 반카

뉴스룸 축소 및 언론인의 감소와 같은 문제 외에도 언론의 자유, 특히 독립언론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이 지난 몇년 간 가속화되었다.

독립언론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국가에서도 미친 영향은 쉽사리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몇년 간 떠오른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 중 일부는 현재 폐쇄된 홍콩의 Apple Daily와 같이 전 세계의 독립언론으로부터 출발했다.

이 신문은 홍콩 민주화 시위 진압 관련 뉴스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한반도에 대해 보도하고 모니터링해 온 사람으로서 언론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놀라운 사례는 한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디어의 끈질긴 보도에 의해 부패혐의로 탄핵된 것이다.

인도에서는 기존 언론매체과 독립 뉴스기관의 언론인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특히 2차 유행 기간동안 정부당국의 책임을 묻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

인도의 언론인, 특히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소도시 언론인의 역할이 없었다면 코로나19가 가난하고 취약한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동료 언론인들이 보도한 많은 기사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이었다. 이러한 보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의 실태가 정부 보고서에서 통계로만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필자는 언론인이 사회를 변화시킨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웅이 아니고 보도나 뉴스의 중심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소적으로 그리고 더 넓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언론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발제자



아메드 쿠르니아 수에리아위자자

인도네시아기자협회
해외 담당 팀장
인도네시아

아메드 쿠르니아 수에리아위자자는 인도네시아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했으며 베를린의 국제 저널리즘 연구소에서 공부하고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의 East-West Center에서 Jefferson Fellow를 공부했다. 그는 Wismoyo Arismunandar 장군(전 육군 참모총장), Ali Alatas(전 외무장관)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여러 저명한 인물의 전기를 포함하여 여러 책의 저자이며 2014년부터 최고의 인도네시아 공기업 CEO 및 기업 상을 위한 상임 심사위원이기도하다.

인도네시아의 언론과 사회변화: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가?

“한 나라의 국민을 알고자 한다면, 언론을 보면 된다. 언론은 사회 역학 구도를 반영한다.”

최근 인도네시아 사회의 뉴스 소비행태가 크게 변했다. 기존의 언론은 버려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트렌드를 파악하고 정보를 구하기 위해 신문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TV를 보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이제 새로운 매체인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뉴스 정보 얻기를 선호한다. 아마 주된 이유는 젊은 세대가 새로운 정보 소비습관을 형성해서일 것이다. 이들은 디지털 세상 속에서 성장하였기 때문에 멀티플랫폼 상의 디지털 미디어에 접속하는데 익숙하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7천만, 이 가운데 7549만 명

아메드 쿠르니아 수에리아위자자

(전체의 27.94%)이 8~23세 사이인 Z세대이고 6938만명(전체의 25.87%)이 Y세대(24~39세, 밀레니얼 세대)로 조사됐다. 이는 인도네시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생산성 높은 젊은 세대임을 의미한다.

IDN 연구소가 작성한 2019년 인도네시아 밀레니얼 보고서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는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밀레니얼 응답자의 70.4%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최신뉴스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높은 접근성, 멀티태스킹, 빠른 속도가 이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이다. 또한 이 연구는 밀레니얼 응답자의 97%가 여전히 TV를 시청하고 있으나 한달에 한번 시청하였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들 중 55%가 온라인 미디어에 접속했으며, 16%가 라디오를 청취했고, 13%가 신문을 읽었다고 응답했다. 잡지나 타블로이드를 읽은 밀레니얼 세대는 3%에 그쳤다.

IDN 연구소의 젊은이들의 행태 관련 조사 이후 수십개의 신문사와 잡지사가 인쇄본 발행을 중단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인기있는 석간신문 <수아라 펴바루만>(Suara Pembaruan)은 2021년 2월 1일 폐간했다.

앞서 볼라(Bola), 하이(Hai),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National Geographic Traveler), 칩(Chip)과 같은 잡지뿐만 아니라 영자 신문인 <자카르타 글로브>(Jakarta Globe)도 발행을 중단했고, 소수의 잡지들만 디지털 미디어로 전향하여 운영을 지속 중이다.

이와 관련해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고 특별한 관심을 뒤야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독서에 대한 흥미와 독서력이 감소하는 이유, 특히 텍스트 형태의 정보 소비가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왜 쉽게 인쇄매체에서 정보를 시청각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제시하는 디지털 미디어로 눈을 돌리는가?

한 미디어 비평가는 “기존의 미디어, 특히 인쇄매체의 품질이 매우 낮다”고 비판한다. 그는 “인쇄매체 언론인이 작성한 기사의 대부분은 뉴스만을 전달한다”고 했다. 그는 “문제에 대한 해답도 없고, 기사가 포괄적이지도 않다”며 “언론인들은 너무 게을러 더 깊게 파고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인도네시아 인쇄매체의 독자수가 떨어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그는 지적했다.

아메드 쿠르니아 수에리아위자자

그에 따르면 소수의 주류 언론만이 지속적으로 깊이 있고 포괄적인 양질의 기사를 제공하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현상을 예리하게 분석한다. 젊은 세대의 뉴스 정보 욕구 충족에 중요한 한 가지는 ‘뉴스가 간략하고 의미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밀레니얼 세대가 원하는 정보는 무엇이 문제인지, 왜,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자신에게 어떤 중요성이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핵심을 간략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TV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TV방송국, 특히 지방 방송국은 상당수가 방송을 중단하였다. 이들 중 대부분은 심각한 재정 손실을 보았다. 이익과 손실 간의 갭을 줄이기 위해 대규모 해고도 단행하였다.

인도네시아대학교(University of Indonesia) 경영경제학부 레날드 카살리(Rhenald Kasali) 교수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TV산업이 최근 몇년 동안 디지털산업 혁신에 직면하여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다.

자산규모가 큰 TV방송국들은 투자와 운영손실이 매우 적고 자산규모도 적은 신산업에 의해 침식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비디오와 같은 신매체는 TV와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중 접근성도 더 높다. OTT는 TV산업 환경을 크게 변화시켰다. 기존 TV방송국의 제작비용은 플랫폼 기반 TV보다 더 높다. 디지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구하고 엔터테인먼트를 즐긴다.

이러한 상황은 인도네시아 TV프로그램의 품질지수 하락으로 인해 더 악화되고 있다. 2021년 9월 1일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와 12개 대학이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이전 연도 대비 품질지수가 3.21에서 3.09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정보소비가 기존 매체에서 디지털 미디어로 대규모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인도네시아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급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위아소셜(We Are Social)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월 인도네시아의 소셜미디어 사용자 수는 1억9100만명이었다. 이는 전년(1억7000만명) 대비 12.35%p 증가한 수치다.

■ 아메드 쿠르니아 수에리아위자자

소통방식의 변화는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탄생에 큰 영향을 받는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의 상호작용 방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회사나 공공기관과 연계하는 방식도 변화시킨다. 소셜미디어로 인해 뉴스나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방식도 변화하였다.

인도네시아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소비패턴 변화는 민주주의 체제에 의해 강화된다. 모두가 자신의 의견과 공공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공간을 가진다.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있을 때, 대중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이에 대해 비판을 하고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이전에는 시위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캠페인이 소셜미디어로 전환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중과 소통하는 대중매체 매니저들에게 소셜미디어가 더 이상 보조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현실은 대중매체가 소셜미디어에 들어가 새로운 소통방식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소셜미디어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산업 관리전략은 특별한 접근이 필요한 소셜미디어의 많은 요소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기존의 매체가 디지털 미디어로 방식을 변경해야 할 뿐 아니라 젊은 세대의 요구를 충족하는 콘텐츠 패턴, 즉 정보가 그들에게 어떤 중요성과 이익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할 때다.

발제자



바얀 라마자노바

카자흐스탄기자연합회
사무국장
카자흐스탄

바얀 라마자노바는 45년 이상의 저널리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 외교사관 학교를 졸업하였다. 6년간 카자흐스탄 PM 프레스 서비스 차장 겸 전문가로서 근무하고 있다.

언론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언론인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필자는 “그렇다”고 답을 할 것이다. 단지 한 명의 언론인이라도 사회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언론인은 다른 누구보다 사회를 훨씬 더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좀처럼 보장되지 않는 전체주의 사회에서도 언론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더 효율적이어야 하는가? 그렇다. 우리는 언론의 효율성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언론인은 서로를 지지하고 성공담을 공유해야 한다.

많은 문제가 언론의 도움으로 해결되어 왔다. 1년 전 카자흐스탄 언론은 매우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단지 주사 한방이면 이런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으며, 이 어린 환자들은 두살이 되기 전에 이 주사를 맞아야 한다.

그러나 이 주사는 200만 달러가 넘으며, 우리나라의 평균 연봉은 500달러가 채 안된다.

■ 바얀 라마자노바

우리나라에는 약 100명의 아이들이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들의 치료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부모들이 SNS 크라우드펀딩을 해야 했다. 일부 아이들은 목숨을 구했고, 일부는 목숨을 잃었다.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언론인들은 이에 관한 기사를 썼다. 그 결과 올해 '카자흐스탄 사람들을 위한 재단' 즉 Halykna재단이 설립되었다.

이제 이러한 아이들을 위한 치료에 자금이 할당될 것이고,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초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정확한 사건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아직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SNS와 언론에서 경찰의 권력남용과 고문행위에 대해 수많은 메시지들이 오고 갔으나, 아직도 조사는 진행 중이다.

안타깝게도 한 사회의 모든 중요한 문제가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작은 이미 진행되었으며, 상황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불행히도 일부 국가에서는 언론이 상황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전체주의 정권 하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없고 언론이 민감한 문제를 제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언론인이 박해 받고 살해당하고, SNS가 차단되고, 언론이 탄압되는 경우를 목도한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언론인이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믿기가 어려울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동료들을 지지해야 한다.

국제언론기구와 국제인권기구들이 있으며, 이들이 하는 일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언론인협회(Unions of journalists)은 이를 방관해선 안 되며, 그들의 성공담을 전해야 한다.

언론이 세상을 변화시킨 사건들은 모두 다 중요하다. 한 마을이나 구역 단위에서 일어난 변화도 큰 용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성공담은 어려운 상황에서 일하는 언론에게 희망이 되고, 젊은 언론인을 교육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협력해야 한다.

세상에는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코로나19가 그 예이다.

거의 모든 국가의 모든 언론인이 코로나19 대응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대응에 있어

■ 바얀 라마자노바

각 언론과 각국은 각자의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각 국가의 언론인들은 규제와 봉쇄 하에 힘겹게 일했으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전하였다.

각국 언론은 종종 동일 이슈를 다루고 동일 문제에 직면한다. 우리가 협력할 때 문제 해결이 더 쉬워질 것이다.

모든 국가에서 절실한 또 하나의 글로벌 문제는 언론인의 전문적 역량이다. 모든 국가에서 교육수준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다.

언론의 기능은 단지 뉴스를 보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언론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호기심을 가지게 하고 사람들을 좀 더 지적으로 만들 수 있다. 교육 받은 매우 전문적인 언론인만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는 경험을 공유하고 언론인의 역량을 좀 더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자료를 게시하기 위한 단일 플랫폼이 필요하다.

이는 언젠가 글로벌 언론인 연합으로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학생 교환 프로그램이나 여름캠프 조직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러나 언론인들은 온라인으로 연합하여 함께 협력할 수 있다.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요즘 소셜미디어가 기존의 언론을 대체할 것이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소셜미디어를 무시할 수는 없다.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적대적이기보다 서로 협력하고 보완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언론과 소셜미디어의 협력 케이스를 공유할 수 있다.

모든 나라에서 블로거를 언론인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이들 나라는 언론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블로거를 언론인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블로거는 어떠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가?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혼란이 있다. 블로그 활동에 대한 공통된 해석, 합의, 이해가 필요하다. 언론과 소셜미디어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할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유용한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 바얀 라마자노바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 단지 정보 세계만이 아니라 가상 온라인 세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함께 협력할 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 서로 협력하자.

발제자



이민규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
한국

그는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에서 28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공부했고 미국 콜롬비아 미주리안 신문사와 한국언론연구원(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근무했다. 제44대 한국언론학회 회장과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기자상과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을 맡았다. 컴퓨터 활용취재를 활용한 데이터분석 전문가로서 많은 언론사 탐사보도 프로젝트에 자문과 참여를 했다.

한국언론에서 언론보도로 인해 사회변화를 가져온 대표적인 3가지 사례

사례 1: 부산일보의 김주열 시신사진 특종

1960년대 초, 이승만 정권은 장기집권 독재체제의 공고화를 위해 발췌개헌, 사사오입, 3.15 부통령 선거결과 조작 등을 일삼으며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기망하였다. 이에 분노한 마산 시민들은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거리로 나오게 되었고, 이승만 정권은 경찰 공권력을 투입해 무력으로 마산시민을 진압하였다.

규탄시위 이후 28일이 지난 1960년 4월 11일, 최루탄이 얼굴에 박힌 채 사망한 김주열 군의 시신이 마산 합포만 중앙부두에 떠올랐고, 부산일보 마산주재 기자인 허중 기자는 이 사진을 부산일보 데스크로 보냈다.

이민규



<사진 1> 1960년 4월 12일자 부산일보의 김주열 학생 시신 보도

4·19혁명은 최초 행동주체가 학생이었으나 '혁명적 감정'을 일깨운 원동력은 언론이었다. 4·19를 '언론혁명'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산일보의 보도는 이승만정권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많은 글이 아닌, '한 장의 사진'이었기에 강력한 파급력을 지닐 수 있었다. 사진은 백 마디 말보다도 강한 의미를 지닌다. 사진 속에 비친 가까머리 소년의 얼굴을 관통한 탄환의 광기, 죽은 자에 대한 예의마저 바닷가에 내다버린 권력의 야만성은 모든 사람을 전율케 하기에 충분했다.

이후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고무되고 조종된 것'이라는 「폭도 프레임」으로 일련의 사태를 무마하려 했지만 「17세 소년의 무참하게 살해당한 시신 사진」이라는 명료하고 충격적인 팩트 앞에 폭도 프레임은 시민들에게 더 이상 자극적이지도,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만약 허종 기자의 사진이 없었다면, 그리고 부산일보 데스크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언론인으로서의 용기 있는 역할을 그들이 감내하지 않았다면 시민의 '혁명적 감정'이 촉발될 수 있었을까?

폭력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가 억압받는 등 민주주의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1960년대. 데스크가 고심했던 그 하루의 시간과, 언론인으로서의 양심을 지켜내고자 폭력의 두려움을 극복한 용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흘러 4·19혁명은 비록 조직화되지 못한 움직임으로 인해 또 다른 독재가 들어서는 것을 막지 못한 미완의 혁명이었지만 이러한 언론인의 책임감 있는 용기가 제2, 제3의 혁명을 가능하게 한 '부식들'의 역할을 한

이민규

사례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언론이 진실을 탐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할 의무는 햇불의 모습으로 남아있다. 언론인은 언제나 불의에 항거하는 화살을 당길 수 있도록 바람 부는 들판에 늘 서 있어야 한다.

사례 2: 1987년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이었던 박종철 군은 자신의 하숙집에서 경찰에 연행된 뒤, 동아리 선배의 소재를 밝히려며 물고문과 폭행을 당했다. 박종철 군은 그날 저녁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사망하게 된다.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것이 바로 중앙일보의 특종이다.

그 이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고문치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동아일보가 범인축소 조작모의 사건을 특종으로 사건 다시 점화하여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보도를 계기로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 개헌 선언을 하였다. 강민창 치안본부장 구속됨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보도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와 한국 언론사에 남을 특종 탐사보도이다. 이 보도가 기폭제가 되어 대한민국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쟁취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대사는 권력의 억압과 이에 대한 저항의 역사로 기록된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킨 언론보도들은 민주주의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 할 수 있다.

사례 3: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

2016년 8월 2일 TV조선은 미르, K스포츠 재단 설립 관련하여 전경련을 매개로 900억 원의 모금활동을 한 사실을 보도 하였다. 다음날인 8월 3일에는 미르와 K스포츠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창립총회 회의록 내용이 이사진 이름과 모금액을 제외하곤 토씨하나까지 똑같았으며, 이 두 재단의 배후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도하였다. 뒤이어 안중범 수석의 일련의 행동 가운데에는 최순실이 관여되어 있었음을 한겨레에서 보도하면서 청와대-대기업(전경련)커넥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한 최순실 스캔들은 수면 위로 급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언론인들은 '스모킹 건'을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다. 몇몇의 기자들은 세절되어 버려진 문서를 조각조각 맞췄고, 문 달은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러한 집념은 결국 JTBC가 태블릿PC를 발견하는데 이르게 했다. 2016년 10월 24일 JTBC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JTBC는 고영태가 취재과정에서 언급한

이민규

“최순실이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이다.” 라는 이전의 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위와 일치되는 증거의 존재인 최순실 파일을 공개했다.

JTBC는 최순실이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발견한 태블릿 PC안에 대선 후보시절부터 취임 이후까지의 대통령 연설문 파일이 들어있었으며, 이 파일을 받은 시점은 모두 대통령이 연설을 하기 이전이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고, 연이어 수요일에는 그 내용으로 드레스덴 연설문 및 인수위 인사자료, 안보기밀과 국가정책, 대통령의 신변잡기까지. 최순실이 보고받았던 파일의 세부사항을 공개하며 비선실세 국정개입의 심각성을 확산시켰다. 이는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가 우리가 투표한 사람이 아닌,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한명의 “강남 아줌마”였다는 사실을 언론이 국민에게 알린 것이다.

파급력은 막강했다. 비선실세와 의혹으로 둘러싸여 뒤덮여있던 청와대는 최순실 파일과 태블릿PC로 인해 무섭게 불이 붙기 시작했다. 첫 보도가 나간 직후 대통령이 직접 불을 끄고자 대국민 사과문을 낭독하는 등 전면에 나섰지만, 방점을 찍는 확실한 팩트 앞에 소용이 없었다. 이 보도를 계기로 전 국민적인 촛불집회가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어 구속되었다.

[단독] 최순실 PC 파일 업수...대통령 연설문 전 연설문 받았다

JTBC는 2017년 10월 20일, 서울 2017-11-01 16:00
 출처: 뉴스룸 모든 새로운 정보, JTBC가 카운트다운을 진행합니다

[답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는 이른바 최순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관련 소식을 조금 보겠습니다. 지난주 JTBC는 최순실 씨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고문대 직원 최영환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최순실 씨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도하자 청와대 이용훈 비서실장은 "장담한 사실이 아닐 수 있겠으나, 중간시도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말했습니다. JTBC가 고 최씨 말을 보도한 배경에는 사실 또 다른 일기 여러 줄 전행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JTBC 취재팀은 최순실 씨의 공무외 화장을 감수해서 분석했습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읽어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디. 그런데 최 씨가 연설문 44개를 파일 형태로 받은 시점은 모두 대통령들이 연설을 하기 이전이었습니다.



<사진 2> JTBC 태블릿PC 첫 보도

이민규

언론인은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체 없이 결단하고 이를 실행하는 실천가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이 같은 시각에서 볼 때, 위의 특종 보도들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결단하고 실행한 언론보도의 모범적인 사회변동 사례이며, 언론인의 존재이유를 잘 보여준 사례이다. 시대가 변하고, 매체 환경이 달라지더라도, 언론인은 정의를 실천해야하는 책임감과 존재이유를 그 사회 속에서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발제자



정환봉

한겨레
기자
한국

정환봉 기자는 1979년에 태어나 2011년 7월 한국 종합일간지인 한겨레에 입사하였다. 2013년 그는 국정원의 대선 여론 조작 사건 등을 보도하였다. 이 보도는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한국기자상 대상에 선정됐다. 2017년에는 국정원이 민간 여론 조작 조직을 운영한 사실을 취재해 한국기자상을 수상하였다. 권력 기관을 상대로 한 취재를 주로 진행하였으며, 노년 요양시설의 실태를 다룬 보도와 세월호 침몰 사건 취재 등에 참여했다.

권력기관의 인터넷 여론 조작 보도

개요

한겨레신문사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가정보원, 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대선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정원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

-18대 대통령 선거 8일 전인 2012년 12월11일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국정원 직원의 여론 조작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오피스텔 앞에는 민주당 관계자들과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던 국정원 직원이 대치했고 경찰이 출동해 사건을 수습 중이었다. 결국 국정원 직원은 자신의 노트북 등을 경찰에 제출하며 대치 국면이 마무리됐다.

-경찰은 대선을 3일 앞둔 2012년 12월16일 밤 11시에 국정원 직원이 대선 관련 인터넷

정환봉

댓글을 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선거는 여당의 승리로 마무리됐으며, 수사는 지지부진해졌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온라인 활동을 했지만, 여행이나 쇼핑 등의 글을 주로 올렸다고 언론에 말했다. 국정원은 해당 직원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어떤 글도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겨레는 2013년 1월31일 해당 국정원 직원이 대선 시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여당을 옹호하는 글을 91차례 작성한 사실을 확인해서 보도하였다. 한겨레는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글을 모두 입수해 분석한 뒤 보도하였고, 경찰도 이를 인정했다.

-이어 한겨레는 2013년 3월18일 원세훈 국정원장이 △선거 시기 인터넷 여론 개입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 활동 견제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노동조합 탄압 등을 지시한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였다.

-2013년 5월15일에는 당시 야당 출신의 서울시장을 공격하기 위해 작성한 국정원의 정치공작 문건을 입수해 보도하였다.

-2017년 4월에는 국정원이 '알파팀'이라는 민간 조직을 활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에 나섰다라는 사실을 알파팀 관계자를 직접 취재해 보도하였다.

-국정원의 이같은 여론 조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진행되었다.

-결국 대법원은 2018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치 관여를 위해 직원들에게 207건의 인터넷 게시물 및 댓글을 달도록 하고 28만8926건의 트윗을 작성하도록 한 사실 등을 인정해 징역 4년형을 최종 선고하였다.

국군 사이버사령부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

-한겨레는 2013년 10월 군에서 사이버전쟁을 담당하는 사이버사령부 역시 인터넷 여론 조작에 나선 사실을 보도하였다.

-한겨레는 사이버사령부 군인과 군무원이 국정원 직원과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정치적인 게시글을 올린 것을 확인해 보도하였으며, 국외 한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추천건의 정치적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밝혀냈다.

-한겨레 보도 이후 이뤄진 군사 경찰과 검찰 등의 수사로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연세욱 사이버사령관 등이 기소됐다. 군의 여론 조작은 2010년부터

정환봉

2012년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전후 7500건의 정치 관여 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해 금고 2년형을 선고하였다.

경찰 인터넷 여론 조작 사건

-한겨레는 2018년 3월 국정원과 군에 이어 경찰도 2011~2012년 사이 인터넷 여론 조작에 나선 사실을 확인해 보도하였다.

-한겨레는 경찰 내부자를 취재해 경찰 역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인터넷 정치 개입에 나선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의 인터넷 여론 조작 방식은 국정원이나 군과 유사한 형태였다.

-한겨레는 2018년 7월 여론 조작이 벌어지던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조현오씨를 직접 인터뷰해 자신이 직접 여론 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게시글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기도 했다.

-결국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2022년 2월 항소심에서 1만2700건의 정치 관여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보도가 가져온 변화

-한겨레는 국정원, 군, 경찰 등 권력기관이 정권 유지를 위해 광범위한 인터넷 여론 조작을 진행한 사실을 드러냈다. 보도는 수사로 이어졌고 그 결과 여론 조작에 나선 각 기관의 수장들은 처벌됐다.

-한겨레 보도로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여론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이며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그 결과 민주적 여론 형성의 여건이 마련됐다.

-국가정보원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도 개정되어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을 엄히 처벌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

발제자



누르잔 카스말리에바

Kabar News Agency
국제부 에디터
키르기스스탄

누르잔 카스말리에바는 키르기스스탄의 유일한 공식 정보 출처인 Kabar News Agency의 국제부 에디터이다. 그는 22년동안 근무하면서 저널리즘 분야에서 방대한 경험을 쌓았다. Kabar News Agency에서 뉴스 번역가로 경력을 시작해 승진할 수 있었다. 또한 총 5개 언어(영어, 터키어, 키르기스어, 중국어, 아랍어)로 번역하는 부서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의 뉴스, 기사, 인터뷰는 카바뉴스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에도 찾아볼 수 있다.

언론인과 사회

언론과 사회는 수세기 동안 서로 관계를 맺어 왔다. 요즘은 언론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도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사람들이 이들 없이 살아가기가 거의 불가능 해졌다.

언론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증인 역할을 하고 이러한 사건들을 보도하며,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이슈들을 알게 된다. 언론이 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표현은 어쩌면 과소평가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언론은 사회 각층에 영향을 미쳐왔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안과 관련된 역사적 흐름을 변화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이 정치와 관련이 있고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언론이 미치는 영향은 이를 뛰어넘어 다양한 삶의 측면에 다양하게 개입한다.

■ 누르잔 카스말리에바

언론은 전쟁, 갈등이나 스캔들을 보도함으로써 정치 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언론인은 코로나19나 기후변화가 제기하는 위협, 여성과 소수집단에 대한 우대정책, 피난민들의 고충, 스포츠 등에 대한 기사를 전달하는 역할도 해왔다.

언론인의 역할은 전문가로부터 얻은 중요 정보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진보된 기술로 전 세계에 매우 빠르게 유포되는 허위정보로부터 언론을 보호하며 독자 및 시청자들에게 이러한 이슈들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이다.

언론인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잘 이해하게 하고, 정치 사회 경제 관련 사건이 발생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이에 관한 원인과 영향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소셜미디어의 엄청난 발전은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기술, 속도, 그리고 사용의 편리성을 갖춘 소셜미디어는 행동을 변화시켰고, 태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전 세계에 새로운 생활방식과 소통방식을 가져왔다.

하지만 불행히도 소셜미디어는 허위정보가 전 세계에 빠르게 확산되는데도 일조를 하였다. 언론인들과 블로거, 활동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한다. 오늘날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모두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들은 정부기관의 조치나 결정을 비판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도록 이끈다. 언론인은 정부기관의 조치와 결정을 분석하고, 이를 대중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언론은 당국이 취한 조치에 대해 당국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내 조국인 키르기스스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여러 가지 기회가 넘쳐나는 곳이다. 소련 붕괴 후 키르기스스탄에는 활기찬 사회와 국가를 구축하려는 강력한 욕구가 있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통해 미디어는 번영하였고, 언론인은 국가재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일부 국제보도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 미디어의 인기가 중앙아시아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한다.

동시에 젊은 세대는 자신의 개인 견해를 피력하는데 디지털 툴을 적극 활용한다.

■ 누르잔 카스말리에바

당면한 도전과제들이 간단치는 않지만, 키르기스스탄 언론인과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전례 없는 전환기에 사회변화를 위해 계속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 틀림없다.

발제자



노릴라 모흐드 다우드

Malaysia World News

편집장

말레이시아

노릴라 다우드는 말레이시아 기자연맹(NUJM)에서 회장 재직 기간 동안 호주, 미국, 스웨덴, 방글라데시, 이집트, 벨기에, 아세안 국가, 중국, 인도, 한국, 대만에서 말레이시아 언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발제자로 초청을 받았었다. 서울, 아테네, 안달루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던 국제기자연맹(IFJ)총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또한 그녀는 말레이시아 프레스 기관(MPI) 및 정부 기관에서 저널리즘에 대해 강연했다. 35년동안 Utusan Malaysia에서 기자로 근무했었다. 그는 지역 정치, 경제, 사회문제, 스포츠, 범죄 및 법원 사건들과 대기업의 특집 기사를 담당했었다. 태국 방콕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배드민턴 월드컵 대회를 취재하기 위해 파견되어 다양한 스포츠 세미나 및 포럼에 참석했었다.

“디지털 시대 온라인 언론인의 영향력”

이번 주제에서는 언론인이 사용하는 매체(신문이든 온라인 뉴스 포털이든)를 넓은 범위와 관점에서 다룬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뉴스 포털이 '정보 및 미디어세계'에 편입되기 전, 신문 1면 기사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언론인들은 독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질 수 있었다.

그들은 정치, 문화, 종교, 경제, 국제관계, 라이프스타일 및 패션 트렌드와 같은 여러 분야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성공적인 '선전 선동가'로 간주됐다.

일단 독자의 관심을 얻는데 성공하면 글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노릴라 모흐드 다우드 |

독자 및 사회의 사고방식과 라이프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

신문이나 온라인 뉴스 포털의 보도를 통해 자신의 프로그램과 생각을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정치인과 공인 사이에서도 인기를 얻었다. 프로그램과 기사는 신문과 뉴스 포털, 라디오 및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다.

지금과 달리 과거 주류였던 신문 중 다수는 독립 뉴스 포털, 소셜미디어 및 블로거의 대거 출현으로 인해 독자를 잃거나 심지어 폐간되기까지 했다.

오늘날 사회에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옵션과 선택이 있다. 독자가 무엇을 읽고 싶어하는지, 무엇을 알고 싶어하는지, 그리고 수집된 정보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독자들의 선택을 보면, 작가나 언론인이 제시한 아이디어와 정보에 이끌리거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만 읽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에 관한 특집이나 뉴스의 경우, 독자들은 신문이든 온라인이든 매체를 가리지 않고 언론인이 쓴 기사에 현혹되곤 한다. 현재의 팬데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상황으로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원하고 항상 경계 태세를 취하게 되었다. 국내 코로나19의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및 팬데믹의 최신 글로벌 추이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최근 말레이시아 선거에서 Barisan Nasional(BN) 정당 연합이 Sarawak, Melaka 및 Johor 등 3개 주에서 압승을 거둔 사례를 들어보자.

2022년 3월 12일 열린 Johor 주의회 선거에서 야당이 일부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2019년 7월 16일 의회에서 헌법개정안이 통과된 후 18세 유권자에게도 투표자격이 처음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희망동맹(Alliance of Hope) 또는 Pakatan Harapan 연립정부 하에서 통과되었다. 당시는 마하티르 제7대 총리가 22개월 간 정부를 이끌던 시기였다. 이후 Perikatan Nasional(PN) 정당 연합의 Muhyiddin Yassin이 제8대 총리로서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말레이시아를 이끌었다.

노릴라 모흐드 다우드

현재 정부는 PN 하의 정당들이 여전히 통제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BN의 Ismail Sabri Yaakob 총리가 이끌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맥락에서 볼 때 언론인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도움 줄 정당을 선택하도록 영향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주 선거에서 경쟁하는 정당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은 투표일 전에 정치 캠페인을 조직했다. 그들의 연설과 선언은 신문, 뉴스 포털 및 지역 TV채널에 보도되었다. 이것이 팬데믹 이후 삶과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하도록 국민들의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킨 것이다.

정부 및 민간소유의 여러 TV채널과 온라인뉴스 포털은 주 선거와 관련하여 유명 교수 및 공인 등과 많은 라이브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들 역시 팬데믹 이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하도록 사람들을 설득했다.

BN은 1957년 독립 이후부터 2018년 제14대 총선 이전까지 61년간 이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나 제14대 총선(2018)에서는 정당 지도자들이 연루된 거대 부패와 자금세탁 스캔들로 인해 대패하고 말았다.

부패와 자금세탁 의혹은 독립적인 온라인 언론인들과 야당 지원 신문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고, 관련 기사들도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을 탔다.

2017년과 2018년 총선 이전까지 BN 여당의 많은 정치인들은 온라인 뉴스 포털의 기사 내용을 모두 부인했으며, 부패 및 자금세탁 의혹에 대한 뉴스를 단지 소셜미디어에서만 인기있는 기사로 치부했다. 사회 전체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온라인 미디어의 존재와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정부 소유의 주류 신문, TV 채널 및 온라인 뉴스 포털은 특히 부패 및 자금세탁 스캔들에 대해 당시 총리였던 Najib Razak 관련 기사를 취재해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민들이 주류 신문을 사지 않고, 국영 TV뉴스와 프로그램 시청을 거부하며, 정부 프로그램을 보이콧하는 순간이었다.

노릴라 모흐드 다우드

2018년 제14대 총선에서 말레이시아 국민이 실제로 목소리를 내고 BN 정부에 투표하거나 지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 결과 BN 정부가 무너지고 야당 연합인 희망동맹(PH)으로 정권이 넘어갔다.

2018년 총선 이전의 정치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Teknologi MARA(UiTM) 대학의 매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Ziinine Abdesselam은 2017년 연구 논문 "온라인 언론: 대중의 사고방식과 정치적 갈등의 변화"를 발표했다.

그는 사회 구성원, 미디어 종사자, 학생, 전문가, 정치 분석가 및 사회/정치학 강사에게 사회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데 온라인 언론의 역할에 대해 묻는 설문지로 연구를 시작했다.

그의 연구 및 연구 결과는 온라인 언론과 언론인이 2018년 말레이시아 사회를 변화시켰음을 입증했다. 이것은 새로운 미디어 또는 온라인 언론의 역할과 효과, 즉 사고방식을 바꾸어 2018년 말레이시아의 정권 교체를 이뤄낸 가장 현실적인 사례다.

발제자



아룬 란지트

Foreign Affairs News
편집국장
네팔

아룬 란지트는 40년동안 저널리즘에 종사해왔다. 그는 중학교때부터 저널리즘 경력을 쌓았고 그는 네팔 최초의 영문 일간지 편집장으로 최고 직위에 오르게 되었다. 3년 반 가까이 복무한 후, 그는 유엔에 합류하기 위해 퇴임했다. 현재 그는 foreignaffairsnews.com의 편집장으로 근무중이다. 그는 수 많은 훈장과 상을 수상 했으며 그의 기사와 연구 논문은 여러 국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신문사의 통신원으로 활동했다.

언론인은 사회변화의 주역인가

언론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직업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삶과 커뮤니티, 사회 및 정부에 대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발언권이 없는 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위한 도구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비록 미디어 스스로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한 인식과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행동을 독려함으로써 사람들이 행동하고, 반응하며, 상호작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사건에 대해 사실적인 뉴스와 견해를 제공하여 사람들에게 책임감을 갖도록 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제4계급의 역할을 해왔다.

아룬 란지트

이처럼 언론은 간접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통해 비도덕적이고 무자비한 행위를 뿌리뽑을 수 있는, 즉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기로 여겨진다.

반면 권위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정치적 이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집권당의 서사를 대중의 마음 속에 심는 역할을 한다.

어떤 것이든, 언론인은 역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사회집단의 인식을 높이고, 특히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변화를 주도한다.

현재 네팔에서는 미디어가 알 수 없는 숫자로 늘어나고 있다. 네팔은 미디어 시장 점유율이 작은 데도 불구하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수천 개의 신문과 온라인 포털이 있다. 라디오와 TV 매체도 100여개에 이른다.

언론인들은 네팔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해왔지만 소유권, 정치적 이념, 비즈니스 회사 또는 다른 부문의 영향으로 이해관계에 따라 중요한 콘텐츠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미디어의 내용이 사회의 이미지를 결정한다고 믿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언론기관이 입증된 자료로 사람들과 사회에 봉사하는 대신 사회적 책임감 없이 정치 홍보에 영합하는 불건전한 경쟁 구도에서 기능하고 있다.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시대에 사람들은 현재의 사건, 뉴스 및 견해에 의존해 일상에 필요한 최신 정보를 얻는다.

모든 것이 마스크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언론인은 사회 변화를 이끌며 세계화를 주도할 힘이 있다. 정보가 대부분 영역을 지배하며, 미디어가 소통과 연결의 강력한 도구인 21세기에 세계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에 대한 책임감 있는 언론인은 그들이 지닌 가치, 품고 있는 신념, 내리는 결정이 허구가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언론인은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변화를 가져오며 사회 변화를 위한 여론을 창출하는 사회 성장의 근간으로 간주된다.

■ 아룬 란지트

일상에서의 언론의 중요한 기능에 대한 사회의 생각에 언론인이 미치는 영향은 말할 수 없이 크고 소중한하다.

따라서 언론인들은 분명 사회변화와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뉴스들을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며,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온라인 포털은 개인이 다양한 뉴스 선택 및 관심사와 관련된 활동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알려주는 자체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네팔 언론인들은 미디어를 통해 인권 및 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정치, 공정한 정의, 조화로운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를 확립하는데 큰 작든 기여하였고,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

새로운 온라인 미디어는 현대사회의 형성, 발전 및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의 육성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 변화에 대한 의견을 형성했고 디지털 공간의 영역을 다원화하고 있다.

오늘날 언론은 필수 요소의 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의 일상의 일부가 되고 있다. 언론인들이 말하고 정한 태도에 따라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사회에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언론인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계발하기 위해 펜을 쥐고 있는 사회변혁가라고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를 넘어 전 세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좋은 언론은 국민, 사회,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발제자



비시누 니스트리

아시아 기자 협회 네팔지부
편집장
네팔

비시누 니스트리는 현재 아시아 기자 협회의 수석 부회장이며 협회의 네팔 지부 회장이다. 그는 약 40년동안 저널리즘에 종사해왔다. 비시누는 네팔 동부 마을 일람에서 기자 경력을 시작했다. 그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네팔 기자 기구의 산하 조직인 네팔 기자 연합(NFJ)을 이끌었다. 그는 네팔 기자 연합(NFJ)의 회장으로 선출되기 전, 사무총장으로 역임 한적이 있다. 또한 사무총장 임기 동안 2005년 왕실 인수 이후 네팔에서 언론 자유 운동을 주도하였다. 언론 자유 운동을 하는 동안, 민주주의, 민중 권리를 위한 목소리를 키웠다. 비시누는 시인이기도 하며 두 권의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현재 그는 멀티미디어 뉴스포털 drishyatv.com의 편집장으로 근무중이다.

언론은 사회를 바꿀 수 있다

언론인의 주된 임무는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편견 없이 균형 잡힌 뉴스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기자 중 몇몇은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나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우리 중 몇몇'이라고 표현하였다.

그 이유는 소수의 언론인만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중립을 지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인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노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부 기자는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이념 및 심지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일하는 소수 언론인들도 있다. 전 세계 독자들이 전쟁 중인 두 나라의

비시누 니스트리

국경 너머로 쏟아지는 뉴스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뉴스는 이에 대한 최적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전쟁터로부터 뉴스를 수집하는데 필요한 기술이 넘쳐나는 21세기에 전쟁으로 인해 야기된 인도주의적 위기와 관련된 뉴스에서 중립성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중립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언론인이 바람직한 사회변화를 야기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중립적인 보도가 드물게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년간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아프리카 국가에서 민주화운동이 촉발되는데 언론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목도해왔다.

물론 이러한 민주화운동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통치자의 부당한 권력행사와 부정부패 그리고 권력 보호를 위해 취한 불법행위를 언론인들이 일반국민에게 보도한 덕분이다.

필자는 2005년 2월 네팔 국왕이 집권한 직후인 2006년 네팔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서있었으며 이를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

당시 이 운동은 왕이 자유언론을 탄압하면서 일어난 네팔 최초의 시민 중심의 민주화 운동이었다. 당시 주류 정당들이 민주화운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나는 자유언론을 위해 군주제를 종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시민사회가 민주화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이에 정당들도 시민들을 독려했으며 운동에 참여하였다. 당시 나는 체포되었지만, 이 운동은 1년 후 결실을 거두어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회복할 수 있었다.

우리 언론인들은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국민과 통치자에게 언론자유와 세계평화를 전하고, 국민과 통치자를 연결함으로써 적어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발제자



고카르나 아와스티

네팔상공회의소 연맹
정책관
네팔

고카르나 아와스티는 수상 경력에 빛나는 네팔의 전 기자이다. 그는 11년동안 국내 최대 일간지인 Kantipur의 비즈니스 편집자로 일했다. 그는 네팔경제저널리스트협회(SEJON)의 전 회장이다. 아와스티는 18년동안 경제 기자로 일한 후,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의 고문으로 유엔 네팔 사무소에 합류했다. 현재 그는 민간 부문의 네팔상공회의소 연맹의 부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펜의 힘이 가져온 변화

필자는 방송과 신문사에서 18년간 언론인으로 일했다. 현재는 언론인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언론을 주시하고 있다. 필자는 언론을 떠났지만 언론은 필자를 떠나지 않았고, 현재는 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청중이다.

언론인들이 광범위한 취재를 통해 세계인의 삶을 바꾼 예는 수없이 많다. 오늘은 두 가지를 나누려 한다. 언론이 네팔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이 분야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네팔은 최근 정치적, 문화적 변화를 많이 겪었고, 언론은 이러한 변화 과정에 큰 역할을 했다. 사회 모든 분야에 정치가 만연하고 있으며 신문 1면에는 정치 뉴스가 늘 자리를 차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은 네팔의 민주주의 회복에 큰 역할을 했다.

■ 고카르나 아와스티

Gyanendra Shah 국왕은 정부를 해산하고 2005년부터 독재 통치를 시작했다. 모든 정당이 연합하여 왕의 독재에 항의했고, 시민들은 가두시위를 벌이고, 정치인들은 매일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반대 연설을 했다.

그러자 왕은 뉴스를 통제하기 위해 뉴스룸에 군대를 파견했다. 언론사들은 사설란을 비워 두며 저항했고, 일부 언론사는 군이 편집한 콘텐츠 대신 공백을 게재했다. 이 저항은 만만치 않았고 언론은 후에 민주주의 회복을 책임진 '제8당'으로 불리게 되었다. 국왕에 반대하여 연합한 정당이 7개였기 때문이다.

이는 네팔의 정치 환경을 바꾸었다. 또 네팔에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켰다.

언론인들이 위험천만한 사회 관행 폐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또 다른 사례가 있다. Karnali와 서부 지역의 여성들은 월경을 하는 동안 오두막으로 강제로 보내져야 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작고 밀집된 오두막에서 지내며 그 기간 영양식을 먹을 수 없었다. 언론인들이 이 문제를 취재하기 시작했다. 이에 수많은 여성들이 오두막에서 지내는 동안 뱀에 물려 목숨을 잃고, 일부는 몸을 녹이기 위해 불을 피웠다가 질식사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또 오두막에서 지내다가 강간과 성추행을 당한 10대 소녀들도 있었다.

언론은 이 이슈에 대해 수년간 보도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광범위한 보도로 인권활동가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2005년 네팔대법원은 월경 중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전통인 Chhaupadi를 금지했다. 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2017년 월경 중 여성들을 강제로 쫓아내는 사람에게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루피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언론은 네팔에서 국가의 규칙과 법을 바꾸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이제 언론인들이 여성의 삶과, 여성을 통해 나라의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기여한 예를 살펴보자. 네팔에서는 여성 기업인 양성을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남성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부문에 여성을 끌어들이 수 있는 규정은 없었다.

■ 고카르나 아와스티

언론인들은 여성들의 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에야 정부가 일부 정책을 변경했다. 언론인들은 여성 기업인을 위한 최고의 인센티브는 세금 감면과 자금 확보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여성 기업인들에게 제공했고, 그 결과 비즈니스 세계에 진출하는 여성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네팔이 겪은 엄청난 지진에 대해 기억할 것이다. 9천명이 목숨을 잃고 역사유물이 파괴됐다. 기념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전통 재료 대신 콘크리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네팔 수도 한복판에 있는 연못인 Ranipokhari도 그 중 하나였다. 언론 보도 이후 정부는 콘크리트 사용을 중단하고 전통 방식으로 지역의 고유 재료를 사용하여 복원해야 했다. 행정중심지인 Singha durbar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언론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뉴스룸이 문제 자체보다는 속보와 청취율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 문제는 네팔에서도 심각하다. 네팔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이러한 원치 않는 트렌드가 유행하고 있는 것이 매우 우려된다.

뉴스룸이 속보경쟁에 피치를 올리면서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보도하기 전 2차례 이상 사실관계를 검증하던 언론의 오래된 규범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고 있다.

전 세계 언론이 직면하고 있는 새롭고도 거대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데 이제 우리 언론인들이 지혜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발제자



라훔 아이자즈

Film N' Chips Media Productions
작가·필름 제작자·기자
파키스탄

라훔 아이자즈는 Film N' Chips Media Productions의 설립자이자 (2021-현재), 경영대학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2018-현재). 그는 또한 파키스탄 Red Bull의 프리랜서 작가 겸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2019-현재).

과거에는 Express Tribune에서 문화기자 겸 영화평론가이자 (2016-2018), 아시아 기자
협회 부편집장으로 근무했다 (2015-2016).

그는 파키스탄 최초의 신디 단편영화 '사막을 달리는 기차'의 각본, 감독 겸 공동제작자로
국제영화제에 작품을 상영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또 다른 신디 단편 영화 '불완전한
인간'의 각본, 감독 겸 프로듀서였으며, Locarno Open Doors와 Vidhi Films 주최 시나리오
워크숍과 (2019), Goethe-Institute Pakistan's Film Talents II(2019-2021)의 워크숍
펠로우였다.

문화전문 미디어 왜 필요한가

필자 라훔 아이자즈는 기자 겸 필름 제작자, 그리고 무엇보다 파키스탄의 기자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기자가 바꾼 사회'다. 필자는 파키스탄에서 그다지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언론 분야인 '문화 언론'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파키스탄에서 문화 특히 영화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발생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은

라훔 아이자즈 |

언론이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문화 언론에 대해 말하기가 쉽지 않다.

파키스탄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곳에서도 문화나 영화, 예술에 대해 기사를 쓰는 것은
정치나 스포츠와 달리 별로 중요하지 않은 '가벼운 것'으로 취급된다.

문화나 라이프스타일 관련 기사 대부분은 클릭 조회수를 위해 어느 유명인이 레드카펫에서
무엇을 입었는지 누가 누구와 사귀는지에 관한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다. 언론은 대중에게 쓰레기를 제공하고, 대중은 결국 이러한 취향을
갖게 돼, 이같은 쓰레기 기사를 더 많이 원하게 된다.

그러나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여 대중이 생각할 수 있도록 섬세한 기사를 제공한다면,
대중의 취향도 천천히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 필자는 문화 언론이 가진
잠재력과 파워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는 몇년 전 파키스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영자 일간신문인 <익스프레스 트리뷴>(Express
Tribune)에서 근무하면서 펀자브(Punjab) 지방의 한 청년을 모델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바레인 거주 파키스탄 영화학도를 알게 되었다.

펀자브 지방의 외딴 시골에 살고 있는 청년의 가족은 그 마을에 단 한 대 밖에 없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다. 이 자동차는 전체 마을사람들에게 응급상황이 닥치면 인근 도시를 오갈 때
이용됐다.

청년은 자동차를 팔고 친척과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두바이로 가 일자리를 구해 고향의
가족을 부양하려 했다. 하지만 도시생활에 적응 못한 그는 곧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청년은 많은 빚을 진 데다 사업 실패로 고향 사람들의 존경을 잃게 되었다.

사이드 오와이스 알리(Syed Owais Ali)가 만든 <파키스탄: 고향 만한 곳은 없다>는 제목의
짧은 다큐멘터리는 <알자지라>에 소개되고, 나도 당시 근무하던 신문에 그의 이야기를
실었다. <알자지라>와 내 기사 덕분에 크라우드펀딩이 진행돼 펀자브 출신의 청년은 새
밴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돈을 모을 수 있었다.

라훌 아이자즈

필자는 개인적으로 그를 알지 못하지만, 몇 주 후 내 기사를 확대해서 붙여 놓은 높은 지붕의 볼란(Bolan) 사진을 받았다. 마침내 마을을 위해 새 차를 구입하고 마을의 존경과 자신감을 회복한 청년이 보낸 사진이었다.

최근에는 이러한 상황의 반대편에 서기도 했다.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세계가 폐쇄되기 시작한 그 때 나는 <사막 횡단 기차>(A Train Crosses the Desert)라는 제목의 단편영화를 제작하고 있었다.

아시아기자협회 회장인 아시라프 아불 야지드(Ashraf Aboul-Yazid)도 그 영화 제작에 간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시 두편을 영화에 사용하게 해주었는데, 그 중 하나의 제목이 내 영화 제목과 같다.

우리는 파키스탄이 폐쇄되기 이틀 전에 촬영을 하였고, 코로나 시국에 영화를 편집한 후 내보냈다. 영화제 주최측은 우리 영화에 대해 호평을 했다. 마침내 파키스탄 신디어로 제작된 단편영화 최초로 우리 영화가 국제영화제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이 영화는 여러 나라의 여러 매체-인쇄, 디지털, 라디오, TV-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파키스탄 국내에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영화가 필요하다는 전국 차원의 담론을 이끌어냈다. 신드(Sindh) 지방정부가 큰 관심을 보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관련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신디 시네마는 파키스탄에 존재하지 않는다. 40년 넘도록 아니 그 이전에도 세계 영화지도에 신디 시네마는 존재하지 않았다.

필자가 이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문화 언론 없이는 단편영화가 이러한 담론을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이 ‘센세이션’하지 않은 이슈를 기꺼이 기사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유사한 많은 예들이 있다. 일례로 대중이 격투기 종목에만 관심을 가져 프로레슬링은 아무도 취재하지 않을 때 이에 관한 취재를 시작하였다. 레슬링 소식이 주요 정치사회

라훌 아이자즈

이슈를 앞지르고 온라인 팬커뮤니티를 생성하기도 하였다. 마침내 사상 최초의 레슬링쇼가 관중 수천명이 운집한 가운데 파키스탄에서 개최되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가? 언론, 특히 문화와 라이프스타일 언론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나는 예술과 문화, 영화, 음악, 연극, 문학이 사회를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폭제라고 생각한다.

전염병, 전쟁, 인권침해와 같은 무겁고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뉴스들이 쏟아질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예술과 문화 관련 뉴스에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예술과 문화 관련 보도는 독자들로 하여금 시간을 읽게 하고, 최신 개봉영화를 관람하며 생각나는 화가의 그림을 감상할 기회를 준다. 이 분야의 기사들은 개인과 사회의 신념체계를 성찰토록 한다. 독자들은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가 일치 혹은 충돌하는 매커니즘과 속성을 깨닫게 된다.

그뿐 아니다. 개개인의 신념과 가치가 사회적 담론과 이슈를 만들어 내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예술 및 문화 관련 기사들은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호기심과 지식, 지적성장에 필요한 씨앗을 구하려는 당신에게 예술과 문화 관련기사는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 자신도 영화제작자의 인터뷰 기사나 영화산업 관련 기사와 영화 분석 기사를 수없이 읽었다. 이를 통해 내 역할은 무엇이며 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곤 한다.

나는 일정한 자격과 지식을 겸비한 문화 언론인이 예술가와 시인 다음으로 세번째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독자들이 갈망하는 무언가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바로 이것이 언론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문화를 보존하고 문화 발전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나의 오래 된 물음이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품고 있을 주제다.

발제자



벤자민 페르난데즈

Radio Libre
편집이사
파라과이

벤자민 페르난데즈는 Radio Libre 및 금융신문 5DIAS, El Independiente의 창립자이자 총책임자이다. 민주주의, 정보의 자유 및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에 가장 솔직한 파라과이 언론인 중 한 명이다.

독재국가에서의 언론인의 공동체 의식

커뮤니티는 말과 의미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다. 사회적 집합체인 우리는 초월적 신념을 제공하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한 결과물이다. 뉴스 보관소 역할을 하는 언론인들은 이기적인 이해관계를 벗어나 공동의 사회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하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바보'로 정의하였다. 이후 로마인들은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시민'이라 칭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뉴스로 정의하는지 그리고 뉴스가 우리의 공동 비전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하는 점이다.

자유나 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은 갈등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지 못한다. 우리는 말, 생각, 뉴스, 공동체 의식 그리고 외국인을 대하는 방식과 같은 초월적인 것들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러한 초월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한다.

벤자민 페르난데즈

나는 35년간 독재가 자행된 국가의 국민이다.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이 외국으로 추방되거나 감옥에 보내졌고 심지어 사형을 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수많은 언론들은 용감하게 독재정권에 도전하고 국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격려했다.

기자들은 처음에는 말로 이같은 현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마침내 현실을 바꾸었다. 독재정권은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해 가짜뉴스로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민들이 서로를 적대시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은 통상 공통의 신념을 공유한다.

기자들은 현실을 조망하고 사회 분열과정을 설명한다. 이런 환경에서 뉴스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역량과 상당한 용기가 요구된다.

민주주의 사회를 구축하는 과정은 매우 섬세하다. 따라서 언론인은 민주사회 구축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차이와 다양성 존중의 가치를 일깨운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사회가 민주화되면 언론인들은 이제 민주화사회에 맞는 시스템 구축에 힘을 보태야 한다.

이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왜냐하면 민주인사로 위장한 구 정권 출신 인사들이 내심 독재정권에 대한 향수를 간직한 채 새로운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마땅치 않게 여기면서 공공재를 부도덕하게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언론인은 이들이 누구인지, 이들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모든 선거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할 수 있는 공직자를 어떻게 선출할 수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 탓에 이것이 매우 힘든 여정일 수 있다. 언론인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식견을 갖추어야 하는 까닭이다.

이는 이해관계가 흔히 상충하는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다. 독재정권 하에서는 국민을 억압하고 진실을 감추는 사람들과 투쟁하기 쉬웠으나, 민주사회에서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민주사회를 공고히 구축하려면 언론인이 본질에 충실한 채 사안을 부단히 연구해 이에 정통하지 않으면 안된다.

■ 벤자민 페르난데즈

어떤 사회이든 이를 지탱해줄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의 초월적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공직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훌륭한 탐사언론은 부패와 맞서 싸우며, 민주사회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부패한 사람들을 판결하고 처벌할 진정성 있는 판사도 필요하다. 언론인이 부패 사건을 폭로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좌절감이 바이러스처럼 제도를 파괴하고 결국 민주주의도 붕괴될 수 있다.

뚜렷한 가치관과 품격 있는 언어와 사고체계,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을 갖춘 언론인은 건강하고 활기찬 민주사회의 근간이 된다. 훌륭한 언론인과 독서하고 토론하고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사람들 간에는 언제나 소통의 창구가 열려있다.

열악한 민주주의는 열악한 언론의 결과다. "신체 건강은 말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격언이 있다. 언론인은 몽롱한 상태를 벗어나 시민들로 하여금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갖출 수 있도록 늘 깨어있어야 한다.

여기서 우려되는 것은 우리는 늘상 가짜뉴스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마땅한 도구가 없는 점이다.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진짜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교묘한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 때문에, 구글과 같은 검색엔진이나 기타 플랫폼은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하지 못한다.

이에 필자는 일반대중에게 언론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들이 함께 참여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언론자율규제 시스템'을 지지한다. 소셜미디어에는 가짜뉴스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다. 팩트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 탓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짜뉴스로 인해 큰 차질을 빚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뉴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팩트체크 기관을 정부나 지방 차원에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짜뉴스 위키피디아도 실행해볼 만한 아이디어다. 대중은 뉴스가 조작 없이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발제자



아이반 림 (신친)

싱가포르환경기자클럽
편집자
싱가포르

신친 림, 그의 필명은 아이반 림이다. 현재 아시아 기자 협회에서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 The Asian.Asia 및 Magazine N의 지역 특파원으로 근무중이다. 그는 국내 대표 신문인 Straits Times에서 정규직으로 경력을 쌓은 후,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그는 마지막으로 노동조합과 고용주들에 관한 문제들을 전문으로 하는 선임 특파원으로 역임했다. 2004년에는 전문 단체인 아시아 기자 협회를 한국 서울에 본부를 두는 데 일조하기도 하였다. 현재 그는 명예 회장으로 재직중이다.

사회변화 과정에서의 언론인 역할

1. 서양 전통에 따르면 펜에서 나오는 소프트파워(soft power)는 총구에서 나오는 힘보다 세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19세기 격언은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에드워드 불워리턴(Edward Bulwer-Lytton)이 자신의 희곡 <리슐리외 추기경>(루이 13세 때 총리)에서 사용한 문장이다.

리슐리외 추기경은 루이 13세를 살해하려는 음모가 발각 됐을 때 말했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칼을 버려라." "그것이 없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은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의 어록에 나오는 말이다. 중국 관습에 따르면 '무관의 제왕'으로 여겨 펜이나 붓을 휘두르는 손을 들어준다. 작가가 결정적인 말을 종종 하기 때문이다.

■ 아이반 림 (신친)

2. 현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언론인은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영향도 미친다. 여기가 언론인의 사회변화에 대한 능력이 드러나는 지점이다. 기쁠 때든 슬픈 때든 대중적 사고를 형성하고,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언론의 잠재력이 인정되고 존중 받는 까닭이다.

3.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적대적인 신문 4개가 총검 1000개보다 더 무섭다.”

“나폴레옹은 언론을 존경했고 또한 두려워했다. 그는 평생에 걸쳐 문학의 힘과 언론의 힘을 깨달았다.”(마이클 브로어스(Michael Broers), 옥스포드대 서유럽역사학 교수)

나폴레옹은 회고록으로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준 동맹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게 했다.

4. 신문은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의 지배로부터 인도를 해방시키기 위한 긴 투쟁을 시작한 때에 그가 선택한 최초의 무기였다.

이 비폭력의 구루는 <Young India>라는 주간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파했고, 국내외의 사회 및 경제 문제를 강조하기 위해 구자라트어 신문 <Harijan Bandu>, 힌디어 신문 <Harijan Sevak> 등 지방언어로 신문을 발행했다.

5. 현대사회에 들면서 사진 영상 언론인, 정치만화 작가 등 실천가들이 등장하면서 미디어의 소프트파워 범위가 확장되었다.

6.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에서 생겨난 난민과 죽음 및 전쟁의 황폐함을 그린 그래픽 이미지가 TV와 휴대폰을 통해 전달되면서 민간 난민을 위한 평화 및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세계적인 시위가 촉발되었다.

아래는 필자가 소속한 싱가포르의 사례들이다.

7. 미디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의 맹공격으로부터 싱가포르를 복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아이반 림 (신친)

8. 지역 신문과 TV, 라디오는 정부와 협력하여 보이지 않는 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본질과 확산 경로 및 증상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렸다.

9. 정부(기득권)를 지지하는 신문과 인터넷매체는 팬데믹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 정책과 행정조치를 전면적으로 보도했다.

10. Lee Hsien Loong 총리와 팬데믹 퇴치 태스크포스의 장관들의 TV방송은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및 인도어로 발행되는 주요 신문에 보도되며,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싱가포르 국민들은 장기간 코로나19와 공존하기 위해, 그리고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싱가포르 국민들이 이 위기에 더 강해지기 위해 어떻게 협력해야 하나?

11. 언론은 코로나 예방 등 기본정보 외에도 확진자 수, 입원을 및 사망자 수에 대한 업데이트를 매일 제공했다.

언론인들은 또한 백신 접종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이를 그대로 믿는 국민들의 태도를 바꾸는 데 도움 되도록 의료 전문가의 논평과 인터뷰를 수시로 보도했다. 이는 백신 부작용을 두려워하는 일부 회의론자와 노인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3월말 현재 싱가포르 국민의 90% 이상이 델타 및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2회 접종을 완료했다. 인구의 73%는 부스터 샷도 맞았다.

12.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백신 접종율을 높이고 환자의 접촉자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제한 같은 안전조치는 코로나19와 공존하기로 한 정부의 최근 결정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발제자



레오 니로샤 다르산 사타시밤

Express Newspapers Ceylon Limited
 뉴스 매니저
 스리랑카

레오 니로샤 다르산 사타시밤은 Express Newspapers Ceylon Limited에서 발행하는 신문인 Veerakesari의 뉴스 매니저다. 그는 20년의 기자 생활을 해왔다. 스리랑카도 30년 동안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다. 그는 2004년부터 기자로 일했으며 전쟁에 참여한 경험도 있다. 따라서 그는 평화와 평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를 방문했고 미디어 연구를 해왔다. 그는 스리랑카 콜롬보 대학교 미디어학과의 자원 봉사자이자 Sri Lanka College of Journalist의 시간강사로 활동중이다. 그는 또한 전국 미디어 상을 수상한적이 있으며 세계기자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올해로 네번째이다.

국가부도 위기 스리랑카 사회와 언론

벤자민 프랭클린은 “국가의 자유를 전복하고자 하는 자는 언론의 자유를 먼저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언론연구소(American Press Institute)는 “언론의 목적과 중요성은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보, 즉 여러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결국 언론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세상이 알게 하는 것이 역할이다.

언론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론은 과거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다. 수년 간 언론은 크게 변했으며, 이제 많은 언론이 디지털로 변했다. TV,

레오 니로샤 다르산 사타시밤

라디오, 컴퓨터, 전화, 그리고 소셜미디어가 있다. 현대인들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자 하며, 이제 모두가 언론인인 세상이 되었다.

소셜미디어가 증가하고 통신속도가 빨라지면서 언론의 얼굴은 TV 호스트에서 대중으로 바뀌었다. 기술 덕분에 일반인이 많은 청중에게 정보를 방송하는 것이 가능해져, 인쇄된 신문, 잡지, TV는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게 됐다.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나 이미 자리를 잡은 온라인 신문을 통해 뉴스를 접한다. 기술발전으로 매체를 불문하고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몇초 안에 뉴스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일반인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더 많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모두가 언론인이 되는 길이 열린 것과 다름없다.

기술 덕분에 언론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정보나 대중문화를 전달할 수 있어 편집과 뉴스를 위해 더 이상 길고 지루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많은 청중에게 호소할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과 2020년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 후에 전 세계에서 일어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는 여러 국가와 국민들 사이에 정보/뉴스가 확산되는데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페이스북을 통해 우산혁명에 관한 소식이 확산되었고, 세계는 홍콩에서 진행 중인 시위 상황에 대해 불과 몇초 안에 알게 됐다.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과 뒤 이은 시위로 마찬가지로. 플로이드가 체포되고 사망에 이른 장면이 녹화된 모바일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게재된 후 빠르게 확산되었다.

많은 사람들과 유명인들이 시위를 기록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기부사이트를 홍보하고, 조지 플로이드를 추도하는데 소셜미디어를 활용했다.

나의 조국인 스리랑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전례 없는 수준의 연료나 LPG가스 부족문제, 정전, 견딜 수 없는 정도의 물가 폭등과 같이 일상을 뒤흔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레오 니로샤 다르산 사타시밤

스리랑카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에 대해 사람들을 시위에 동원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 중이다.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우리의 공동체는 확대된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신뢰할 만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는 사람들도 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보다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을 수 있겠지만, 기성 언론사의 공식 타이틀과 상관없이 편견이 개입될 여지는 여전히 존재한다.

발제자



딜무로드 주마바에브

아시아기자협회
특파원
우즈베키스탄

딜무로드 주마바에브는 2008년부터 경험이 풍부한 국제 미디어 및 출판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다국어 저널리스트로서 4개 국어로 글을 쓰며 여러 미디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설립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지방정부 언론서비스국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터키 IHA 통신사를 대표로 자리하고 있다. 저널리즘 경력과 함께 영어 서적 전문 출판사를 설립하고 Namangan State University에서 언어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언론자유정책 - 두려워 말고 정의 구현에 힘써 달라

2016년까지 수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언론의 역할은 크게 약화되었다.

2016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Shavkat Mirziyoyev는 당선 즉시 언론이 신속하게 발전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개혁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정부기구가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고 언론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진정한 '제4계급'이 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했다.

미국의 정치운동가인 Ralph Nader는 “정보는 민주주의의 통화이다. 이를 부정하는 행위는 항상 의심해야 한다”라고 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지도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을 향상시키고, 언론 종사자의 물질 기술적 토대와 인적 능력 그리고 언론의 전반적 효용을 향상시키는 일을 우선사항으로 삼았다.

■ **딜무로드 주마바예브**

지난 몇 년 동안 관련 법적 규제적 틀을 강화하기 위해 12개의 법안이 채택되었고, 언론과 정보서비스 시스템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등록 언론기관 수가 2016년 1514개에서 2022년 1893개로 증가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이 중 신문사가 642개, 잡지사가 482개, TV 채널이 72개, 통신사가 5개이다. 전자매체, 특히 인터넷 언론이 우즈베키스탄에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

현재 등록 언론 중 33.7%인 638개가 인터넷 발행 웹사이트이다. 정책 투명성과 개방성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은 외국 언론인의 승인절차를 크게 간소화하였다. 우즈베키스탄에는 현재 약 60명의 외국언론 특파원이 주재 중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언론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하며, 이러한 변화는 명백하다. 오늘날 정보는 숨겨질 수 없고 자유롭게 유포된다. 이는 언론자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다루고 있는 언론은 정부 부처와 대중의 관심을 현장의 긴급한 이슈들로 돌리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이슈들에 대처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정부 기관의 장들이 언론사 대표와 정기적으로 회동하며 당면 사회문제와 해외 상황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추구하는 개방성, 투명성, 민주화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 중의 하나다.

언론인과 블로거들은 구시대 관료들의 실수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이 업무스타일을 바꾸고 책임감을 더 가지기를 요구한다.

국민들 또한 인터넷으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 공권력은 시민들의 견해와 비판을 청취하여 공적 영역의 활동을 분석하고,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이런 식으로 통치기구들은 새로운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현실에서 운영되고 있다. 물론 쉽지

■ **딜무로드 주마바예브**

않을 수 있다. 일부 구시대적 사고를 가진 관료들은 개방적이고 투명한 업무처리방식이나 자신들의 활동에 관한 비난을 수용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의지와 헌신, 인내, 올바른 방향성이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언론과 소셜미디어는 지하 경제와 부패가 끼치는 영향을 알고 이러한 부정적 현상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이에 맞서고 있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언론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두려워 말고 정의구현에 힘써 주세요. 우리는 정의구현에 매진해야 합니다. 정의를 수호하고 진실을 알리면, 지금은 지도자나 여러분을 미워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일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체계적인 일처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는 성실한 언론인들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새로운 세상에서 평판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세상에서 언론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발제자



란 풍 (란 쿠티)

Dantri Online Newspaper

편집자

베트남

란 풍은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는 기자다. 그는 2003년 하노이국립대 외국어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였다. 현재 그는 Dantri Online Newspaper의 World News Desk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으며 영문 신문 사이트 Dtinews.vn에서 부편집장으로 근무중이다. 그는 베트남의 다양한 신문사에서 기자, 편집자 및 프리랜서 작가로 근무하며 영어와 베트남어로 문화, 교육 그리고 관광 분야에서 글을 썼다. 또한 한국의 아시아 기자 협회의 멤버로서 The AsianN 웹사이트 및 잡지에 기고한 바가 있다.

언론은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지난 시기 언론은 대중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당국이 건전한 결정과 정책을 마련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사회에 적잖은 변화를 만들어 왔다. 언론은 실제로 어떤 면에서 사회를 변화시켰다.

첫째, 언론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주제를 보도하여 사회 변화를 유도하는 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성불평등은 유교와 봉건적 남성선호사상의 영향을 받은 뿌리 깊은 문제다. 과거 남성은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항상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남자는 학교에 갈 수 있었지만 여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많은 부부가 아들을 선호하는 주요 요인은 깊게 뿌리내린 전통문화에서 기인한다.

란 풍 (란 쿠티) |

이것이 출생 시 성별 선택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아직도 베트남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다.

베트남 언론인들은 여성 특히 소녀들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성차별 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시민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이 문제와 관련된 법률과 정책 개정을 요구하기 위해 성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조직하고 추진해왔다.

필자가 기자로 일하는 <Dantri>는 베트남의 노동 및 보훈 그리고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보도하고 있다. 우리는 여성과 소녀를 포함한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에 주재하는 유엔기구들과 함께 성평등 및 성차별적 폭력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가행동의 달' 행사를 시작했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불평등 증가와 이로 인한 여성과 소녀들의 열악한 상황을 알리는 보고서가 발표되는 것과 맞물려 개최되었다.

둘째, 언론은 부패에 맞서 싸우고 당국의 책임을 요구하는 공공 감시자 역할을 한다.

그동안 베트남의 부패사건들은 지역사회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에 의해 밝혀졌으며, 그 결과 정부에 대해 투명한 정책방향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사례다. 2016년 하우장(Hau Giang) 성의 Trinh Xuan Thanh 부인민위원장이 렉서스 570에 관료 전용차량용 청색 번호판을 달고 운전하다가 적발, 조사를 받았다. 해당 차량의 사진은 다양한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Thanh의 직책상 이 차량은 정부 지정 관용차가 아닐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신문들이 이 문제에 가세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과 관리들의 부정을 폭로했다. 그는 1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것은 베트남 현지 기자들에 의해 적발된 수많은 부패사건 중 하나일 뿐이다. 상당수 고위 공직자, 군 고위 장교, 기업인들이 언론에서 폭로된 후 뇌물수수, 자금세탁, 경제적 관리부실 등의 범죄로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셋째, 언론은 발언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과 자신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었다.

■ 란 풍 (란 쿠티)

이것은 언론의 또 다른 역할이다. 정의를 추구하는 양심수, 피난처를 찾는 난민 또는 구조가 필요한 폭력과 인신매매 피해자 같이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UNFPA와 호주 정부의 기술 및 재정지원을 받아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수행한 2019년 베트남 여성폭력에 관한 국가 연구에서는 베트남 여성의 62.9%가 신체나 정서, 경제 활동 혹은 성폭력 중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 생존자의 90.4%는 당국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그 중 절반은 폭력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에 베트남 언론인들은 여성 대상 인신매매 및 폭력사건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주는 한편, 희생자 상당수를 구조했다.

넷째, 언론은 평범하지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소개하여 이들의 선행을 보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유기견과 유기묘를 구출하거나, 해변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선단체를 운영하는 활동가 등이 그 주인공이다. 언론인들은 보도라는 소임을 통해 대중들에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촉구한다.

미국언론연구소(American Press Institute) 웹사이트에 따르면 “언론의 목적과 중요성은 삶을 영위하고 다양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사회에 제공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런 여러 유형의 기여와 함께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고 확신하다.

2022 세계기자대회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2

24(Sun) - 26(Tue) April 2022

Participants List

참가자 리스트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1	Bangladesh	Mahbub Morshed	The Daily Star	Joint News Editor
2	Dominican Republic	Luis Beiro	Newspaper Listín Diario	Editor
3	Germany	Tobias Kaiser	Die WELT	EU Correspondent
4	Colombia	Angel Galindo	Thepharmaletter	Latin American Correspondent
5	Nepal	Keshab Prasad Poudel	New Spotlight	Editor
6	Bangladesh	Md Tawfique Ali	The Daily Star	Former Senior Reporter
7	Romania	Tinica-Octavia Galescu	Romanian National Broadcasting Company	Senior Musical Editor/ Producer
8	Kyrgyzstan	Nurzhan Kasmalieva	Kabar News Agency	Chief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Translations Department
9	Somalia	Khadar Awl Ismail	National Union of Somali Journalists (NUSOJ)	Secretary of Information and Human Rights
10	Cambodia	Rethea Pann	The Post Media	Reporter
11	Paraguay	Benjamin Fernandez	Radio Libre	Director
12	India	Ranjit Kumar	Ravivar	Strategic Affairs Analyst
13	Nepal	Arun Ranjit	Foreign Affairs News	Editor in Chief

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14	Nepal	Gokarna Awasthi	Federation of Nepalese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Deputy Director General
15	India	Neha Banka		Journalist
16	Albania	Elira Canga	OSCE	Media Project Manager
17	Italy	Antonio Moscatello	Askanews	Journalist
18	Ghana	Malik Sullemana	New Times Corporation	Senior Journalist
19	Poland	Marek Traczyk	Polish Media Association	Chairman
20	United States of America	Lynn Walsh	Trusting News	Assistant Director
21	Papua New Guinea	Gorethy Kenneth	South Pacific Post	Political Editor
22	Georgia	Avtandil Otinashvili	News Day Georgia, News Agency	Director
23	Bulgaria	Pavleta Davidova	DUMA Daily	News editor
24	Honduras	Rosa Pineda	Newspaper The Tribuna	Journalist
25	Laos	Sengthong Phasavath	Lao News Agency (KPL)	Editor in Chief for News in English Division
26	Cambodia	Chanritheara Torn	Thmey Thmey Media	Journalist

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27	Ghana	Jefferey De-Graft Johnson	The Ghanaian Publisher Newspaper	Senior reporter
28	Bangladesh	Ahmed Jamil Ibrahim	Asian Television	News and Current Affairs Advisor
29	Portugal	Leonidio Ferreira	Diario de Noticias	Deputy Editor in Chief
30	Colombia	Margaret Ojalvo	Al Dia Noticias / SIR Radio	Editor and Senior Journalist
31	China	Qimin Wu	Global Times	Editor in Chief
32	Kyrgyzstan	Kuban Taabaldiev	Kabar News Agency	Director General
33	Denmark	Flemming Ytzen	Politiken	Editor
34	Cyprus	Petros Soutzis	Press Agency	Editor in Chief / Director
35	Nepal	Niraj Ranjitkar	Arthik Sanjal	Editor in Chief
36	Ireland	Frank McNally	The Irish Times	Columnist
37	Panama	Alma Solís	Snip Noticias	Director / CEO
38	Yemen	Mohammed Abdullah Almuhaimeid	Peace Initiative	Vice President
39	India	Sabina Inderjit	Indian Journalists Union/ IFJ	Secretary General/ Vice President

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40	Kazakhstan	Kanat Auyesbay	LLP (Media Holding)	Deputy Director
41	Kazakhstan	Bayan Ramazanova	Union of Journalists	Executive secretary
42	Pakistan	Rahul Aijaz	Film N' Chips Media Productions	Writer·Filmmaker·Journalist
43	Pakistan	Nasir Aijaz	Sindh Courier	Editor in Chief
44	Sri Lanka	Leo Nirosha Darshan Sathasivam	Express Newspapers Ceylon Limited	News Manager
45	Egypt	Ashraf Eldaly	The Silk Road Literature Series	Editor in Chief
46	Vietnam	Lan Phong (Lan Cu Thi)	Dantri Online Newspaper	Editor
47	Iran	Alireza Bahrami	ISNA News Agency	Editor in Chief
48	Iran	Pooneh Nedai	Shokaran Magazine	Editor in Chief
49	India	Neelima Mathur	Formedia	Trustee / Trainer
50	India	Gunjeet Sra	Subculture Media	Editor
51	Bahrain	Habib Toumi	Bahrain News Agency	Media Advisor
52	Singapore	Ivan Lim (Sin Chin)	Environment Communicators of Singapore	Editor

Participants List / 참가자 리스트



No.	Country	Name	Organization	Job Title
53	Nepal	Bishnu Gautam	Rising Nepal	Editor in Chief
54	Philippines	Rosalin Garganera	Asia Journalist Association	Correspondents
55	Cambodia	Sophal Chhay	Cambodia News	Advisor and Columnist
56	Germany	Hassan Humeida	GEOMAR/ University of Kiel and University of Flensburg	Doctor
57	Malaysia	Norila Mohd. Daud	Malaysia World News	Editor in Chief
58	France	Bilal Bassal	Asia Journalist Association	Journalist & Art Critic
59	Uzbekistan	Dilmurod Djumabaev	Asia Journalist Association	Correspondent
60	Nepal	Bishnu Nisthuri	Asia Journalist Association (Nepal)	Editor in Chief
61	United States of America	J. Alex Tarquinio	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	Past National President
62	Vietnam	Do Hoa Mi Nguyen	Vietnam Journalists Association	Deputy Head of International Desk
63	Indonesia	Ahmed Kurnia Soeriawidjaja	Indonesia Journalist Association	Head of Foreign Affairs
64	Russia	Timur Shafir	Russian Union of Journalists	Executive Secretary
65	Mongolia	Chuluunbaatar Dolgor	Asia Journalist Association (Mongolia)	President

※The list is based on the order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참가자리스트는 등록 순서에 따라 기재되었습니다.



WJC World
Journalists
Conference
2022

2022 세계기자대회